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 9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 형 환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방안 연구

-노동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중등교육 전공

김 향 희

2013년 2월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방안 연구

-노동요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중등교육 전공

김 향 희

김향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2013년 2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고찰	5
II. 제주도 토속민요의 개관	7
1. 제주도 토속민요의 특성	7
1) 노동요의 의의	10
2) 제주도 노동요의 개념적 위상	12
2. 제주도 토속민요의 현황 및 실태	17
1)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정 노동요	21
2) 제주도 토속민요의 기능적 분류	24
3. 노동요의 가창방식과 사설의 의미	29
III. 제주도 무형문화 지원정책 현황	32
1. 제주도 무형문화 지원정책	32
1) 제주도무형문화재 현황	34
2)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승실태	40
2.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48
1) 경제·사회적 측면	51
2) 정신·문화적 측면	53
3.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정 노동요 전승과정	56
1)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58
2)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61

IV. 제주도 노동요 전승방안	66
1. 제주도 노동요 지역특성화	66
1) 전통문화 공연예술 상품콘텐츠	68
2) 전승공연 시연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확대	70
2. 지역기반시설 및 교육기관과 연계프로그램 강화	73
1)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 공개공연 외 타 도시 교류공연	76
2) 전수교육관 체험강습 및 교사직무 연수로 전승기대	79
3.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방안 사례	82
1)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 강습 및 시연사례 ·	84
2) 제주농요 전수교육관 학습자 제주농요 강습 및 시연사례	86
3)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공연사례	88
4.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결과 및 분석	91
1) 통계처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91
2) 제주도 공동체 의식문화 및 가치관 관련내용	92
3) 제주도 토속민요에 관한 일반적 현황	96
4)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관련 내용	99
V. 결론 및 제언	102
1. 결론	102
2. 제언	104
참고문헌	105
<부 록>	108
국문초록	115
ABSTRACT	118

표 목 차

<표 1> 제주도 (濟州道) 민요분류	18
<표 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분류	23
<표 3> 제주도 민요의 기능성(機能性) 분류	25
<표 4> 무형문화정책의 변천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33
<표 5> 국가지정 문화재	35
<표 6> 도 지정 문화재	35
<표 7>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36
<표 8>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38
<표 9>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실태	42
<표 10>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별 특성	44
<표 11>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50
<표 12> 인류의 무형유산 등재 현황	55
<표 13>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 노동요	57
<표 14> 해녀노것는 소리의 변천과정 (해녀수)	61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63
<표 16> 문화기반시설 현황	74
<표 17> 제주도 노동요 전승 현황	83

그림 목 차

<그림 1> 경제·사회적 측면	53
<그림 2> 해녀축제	59
<그림 3> 제주도무형문화재 16호 제주농요 전승강습 및 시연	65
<그림 4> 제주도 토속민요 노동요의 전통문화공연 콘텐츠	70
<그림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무형문화재 체험강습’	71
<그림 6>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제16호 제주농요 전승강의	72
<그림 7> 제주농요16호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공연, 강릉단오제공연 ·	78
<그림 8> 제주농요 전승교육 프로그램 (ppt 자료, 전승강의 영상물) ...	81
<그림 9>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 제주농요 강의 ...	86
<그림 10>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제주농요 전승강의	88
<그림 11> 테우(뗏목배)재현-이여도사나 세계자연유산등재 문화축제 ·	9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요는 민중들에 의해 형성되어 口傳되는 口碑文學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서민적인 노래이며 민간생활과 직결되어 그들의 생활양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온 지구상의 사람들은 그 나라 그 민족이 정체성이 담긴 리듬과 가락이 있는 음악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를 가(歌)·무(舞)악(樂)등 고유의 음악적 특성인 그 민족의 언어로 표출한다.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색깔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민요들이 있으며 제주지역에도 향토색이 짙은 토속민요가 있어 이미 선조들의 삶속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사람들의 정신적 주체인 정체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그 속에서 생활해온 제주사람들의 삶의 생활양식과 그 지역 나뭇의 서민생활 일체의 實狀을 보여 주며 주민의식을 집약하고 표현한다.¹⁾ 노동요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삶의 애환과 흥을 이끌어 내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삶을 통해 재생산되고 口傳으로 답습되며 口碑傳乘으로 전해지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으로 짓궂은 역사가 흘러갔으니 조선조 말까지 사람살이 아닌 삶을 도민들을 즐기치게 이어왔으며 土客의 횡포, 중앙정부 관리의 등쌀과 수탈, 貢物 마련과 공물수송이 어려움, 혹심한 부역, 몽골이 침입, 왜구의 침탈 등²⁾ 술한 역경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척박한 땅으로 바람이 많고 투수성이 강한 화산회토로 농사를 짓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사람이 살아가기에 열악한 환경과 본토와의 관계마

1) 김영돈,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國語國文學論文集』, 第12輯, 1983, 44쪽.

2) ———, 앞의 글, 46쪽.

저 소원해져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버림받은 땅 이었다.

제주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自強不敗의 정신으로 環海孤島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제주도 특유의 존냥³⁾ 정신과 공동체문화로 삶을 개척했으며,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희망 등을 노동요의 사설에 담아 표출해냈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은 선조들의 삶의 지혜로 척박한 자연환경에 원시노동요법인 ‘밧불리는 소리’(발밧는 소리)를 만들어내어 화산회토의 메마르고 푸석한 뜰땅⁴⁾에 ‘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라산에 방목한 ‘마소’들을 몰아다 밧을 밧으면서 농사를 지었고, 경제적 수단으로 생계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캐면서 삶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해녀노래’를 불렀다. 일상이 노동이었던 제주여인들은 밧돌방아를 찧으면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소리로 풀어내며 노동요를 불렀으며, 제분요에서 삶의 녹록지 않았음에도 긍정적인 思考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근대화와 노동환경이 변화로 작업현장에서 분리된 노동요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관객을 위한 공연 무대에서 또는 전승강의를 듣는 학습자 중심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노래 부르는 주체 역시 삶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일반인에서 명창이나 보유자 외 강의 주체인 강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옛 선조들의 그 시대상을 총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유산으로 제주방언인 고유의 ‘제주어’로 이루어진 사설과 가락과 기능이 함께 뭉뚱그려져 서민들에 의해 전승 되어온 基層文化이다.

제주사람들에 의해 삶의 현장에서 부르던 노동요는 근대화와 산업화로 노동과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전승되고 있으며 맥을 이어갈 昌者의 수가 줄어드는 등 사라질 위기에 있어 시급한 전승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는 근대화와 노동환경의 변화로 전승의 현장에서 단절되어 사라질

3) 검소하고 절약하는 정신.

4) 토질에 찰기가 없어 바람에 날리는 ‘푸석 푸석한 땅’.

위기에 있는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제주전통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계승방안을 모색하고 후대에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정신·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방안과 노랫말인 ‘제주어’의 사설에서 나타나는 정체성과 가치관, 긍정적인 思考등 옛 조상들의 어기차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문화인 인간적인 삶이 여유를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자연유산과 연계한 무형의 자산으로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지역을 연계한 공연예술 관광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연구와 사회적 측면에서 전승의 현장에서 단절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남아 있는 토속민요를 무형의 가치로 제주전통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과 전승가치로 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과 전승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전역에서 불리어지는 제주민요 중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口傳 되는 토속민요인 노동요를 중심으로 전승현황 및 전승실태를 분석하여 전승방안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사설의 형성배경 및 민요의 연행방법, 제주도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불리어졌던 노동요의 전승실태, 민요사설이 제주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요의 위상 등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와 전승방안 연구를 위해 지역기반 시설에 연계한 전승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제시하여 결과분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대상은 노동요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한 20 ~ 50대 이상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동요의 전승방안과 전승가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통계처리 기초자료 문항, 제주도 공동체의식 및 노동요의 일반적 현황, 노동요의 전승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분석으로 노동요의 전승현황 및 전승구도를 분석하여 후대에 이어 가야 할 전승방안과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경쟁력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유산과 연계한 문화콘텐츠인 공연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가치와 전승의 기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하였다.

또한 노동요의 사설을 통해 정신·문화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등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는 노동요의 전승사례를 통하여 보편적 가치로서의 대중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범위에 정했다.

전승방안으로 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시설 연계프로그램인 노동요 체험학습장을 마련으로 실질적 농사체험으로 자연적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승방안을 마련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진 특수한 지리적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생활풍습, 언어, 문화 등 제주만의 독특한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있으며 타지역과 상이한 제주도에서만 독특하게 전승되는 민요들이 있다.

흔히 일컫기를 제주를 民謠의 寶庫라 한다. 民謠의 寶庫라고 이르는 데는 제주에는 민요가 상당히 가멸 지다는 점과 珍重한 민요가 술해서 그 가락이나 사설로 보아 빼어나다는 뜻을 지닌다.⁵⁾

민요는 구전문학 가운데서도 기능이 두드러지고 가장 庶民的인며 地域性이 짙게 깔린 제주사람들의 삶의 의식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학성으로 나타난다. 민요는 민중들의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불리며 민중들의 생활은 노동과 의식과 유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과 의식과 유희에는 민요를 향유하는 지역의 사회·문화·산업·풍토·관습 등이 울곧게 반영되어 있다.⁶⁾

변성구는 민요는 연행현장에서 전승과 구연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생명성을 지닌 존재로 노래로 인식되어 기능에 따라 가창방식과 가창구조가 결정되며 민요의 사설은 연행상황과 가창자의 능력, 전승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주문화와의 상관성 속에 있다고 했다.⁷⁾

조영배는 민요는 時代的 流動性, 歌唱自別 流動性, 歌唱時別 流動性, 地域的 流動性 등을 갖는다고 했으며, 동일한 민요권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동일한 가창자의 경우에도 그때그때의 환경여건, 감정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⁸⁾

김영돈은 민요는 주민의식을 드러내며 庶民的이요 機能的이며 地域的인 속성으로 서민과 밀착되어 노동의 능률을 올리고 스스로의 삶을 고무하고 확인하는 서민생활의 實相을 보여주는 주민의식으로 집약하고 표현한다고 했다⁹⁾.

5)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0, 41쪽.

6)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13쪽.

7)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15쪽.

8) 조영배, 「濟州道勞動謠의 音組織과 旋律構造에 관한 研究」, - C. Sachs와 R. Lachmann의 이론을 중심으로, 『趙泳培 民謠論輯』, 제1집, 1988, 254~257쪽.

이성훈은 ‘해녀노 젓는 소리’의 구연현장의 가창기연을 기준으로 ①물질 하러 나갈 때 ②물질하고 돌아올 때 ③본토로 출가할 때 등 구연 장소가 조류와 풍향, 파고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가창 기연과 구연 현장의 상황을 중시하여 사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현장의 상황에 따라 大波와 風波일때 역동적이고 직설적으로, 小破와 順風일때는 가창자의 개인적 정서를 노래하는 기연으로 나타나 사설내용이 노 젓는 일을 독려하고 지시하는 기능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목숨을 담보로 물질을 나가야하는 자신의 생활감정을 노래하는 기연으로 사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¹⁰⁾.

좌혜경은 제주도 민요 사설에는 개별적인 삶의 형상화되고 있으며 근면은 곧 노동과 연결시켜서 묘사되고 방아를 찧으면서 노를 저으면서 고된 노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래하는 자신을 위로하거나 부축하거나 또는 체적질로 어기찬 삶을 살아왔으며 그 정신이 바로 전통정신이며 삶의 의지라고 했다¹¹⁾. 제주도의 생업은 남성의 노동력만으로는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웠기에 여자들도 생업에 동참해야만 근근이 살아 갈수 있었다.¹²⁾

제주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문화로 공동작업, 공동분배, 이웃의 어려움을 서로 돕는 수눌음을 통한 이타심으로 노동요는 효율적인 노동의 독려기능 외에 자신들의 삶의 애환을 풀어내는 소통이 매개체로 제주문화의 한 축을 이루며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외세의 침략과 본토와의 갈등으로 고립된 제주사람들은 자연풍토와 재해 등 열악한 환경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고, 척박한 환경은 어기찬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강불패인 존냥 정신으로 강하게 만들었다.

본고는 지역민요로서 독자적인 생활양식과 가치관, 정체성 등을 문헌을 통해서 고찰하고 구연과 전승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승구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승가치의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9) 김영돈,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儀式」, 『國語國文學論文』, 第12輯, 1983, 44쪽.

10) 이성훈, 「해녀노 젓는 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제 6집, 2009, 117쪽.

11) 좌혜경, 「민요를 통해본 제주민들의 세계인식」, 『白鹿語文』, 第13輯, 1997, 61쪽.

12)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106쪽.

Ⅱ. 제주도 토속민요의 개관

1. 제주도 토속민요의 특성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이 있고 세계최대의 기생화산 군락인 검은오름, 사라오름 등 360여개의 오름 들이 있으며 한라영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섬으로 오늘날 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지형은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세기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흐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토지는 대체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이루어지고 내리는 빗물은 흔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흘러가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솟아난다. 마을 대부분도 해안선을 따라 웅기종기 들어섰으며 혈관처럼 뻗어 내린 많은 내들은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야 갑자기 흘러넘치는 이른바 乾川¹³⁾이라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바람은 세차서 농작물에 큰 타격을 주고 여기저기 돌맹이가 지천으로 깔리어 사람 살기에 제주의 환경은 썩 알긋고 척박한 셈이다. 여기에다 굴곡 많고 어둡침침한 역사가 오랜 세월 덮쳐눌러 도민들은 이모저모 어려운 여건에 맞닥뜨리고 몸부림치면서 온몸을 던져 열심히 살았어야 겨우 살아남을 만큼 지난날의 제주민의 삶은 사람삶이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로서는 그날그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살아남는 야 하는 生存 자체가 문제였으니 그저 이를 악물고 부지런히 일하는 생활 태도뿐이었다.¹⁴⁾ 노동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 發生이 實生活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의 실생활이란 勞動活動을 말하며¹⁵⁾ 그들의 생활은 노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13)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0, 28쪽.

14) _____, 앞의 글, 42~43쪽.

15) 조영배, 「濟州道 勞動謠의 리듬적 特性과 勞動行爲와의 관계」, 『濟州教育大學教論文集』, 第16輯, 1986, 115쪽.

제주도 토속민요는 노동의 장소와 일이 특성에 따라 소재만 다를 뿐 첩첩 쌓여진 응어리를 풀어헤치는 기능으로 제주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어 구전되는 가락과 사설이 융화된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불리어지는 소리이다.

자신들은 노래하는 사이에 삶을 확인하고 생활고와 시집살이에서 부딪히는 다난한 실정과 자식과 부모에 대한 애뜻한 심정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또는 노동의 현장에서 효율적인 노동의 독려수단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일을 처리한다.

‘맷돌노래’나 ‘방아노래’의 사설을 보면 제주의 실정과 제주사람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자연에 투영시켜 문학적으로 그려내는 심미적 요인으로 노동요의 사설은 감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인식론적 가치¹⁶⁾등 그 문학적 가치 또한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밭을 일구고 방아를 찧고 바다에 나가 무작맥질로 해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의 연속으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으며, 노동요는 일상이 되어 同一한 曲調에 가창자의 심정을 담아내는 수많은 사설들을 쏟아 냈다. 제주사람들은 노동요의 사설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소리에 대한 인식과 인생관, 운명관, 가난과 재물, 근면 등 개별적인 삶으로 형상화했으며¹⁷⁾ 때로는 자신과의 독백으로 삶의 정서를 사설에 담아 표출하기도 했다. 제주도 선인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생계 문제였으며 육지부와 단절된 環海天命의 불우한 여건과 내우외환의 질곡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생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농업을 중심으로 축산, 어로, 잠수, 상업, 수렵 등 어느 것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생업이었고 본토와 단절된 입지적 요인으로 제주도 토속민요에는 원초성과 고유성이 짙은 독특한 생활양식인 風土, 歷史, 民俗, 生産, 經濟, 社會, 宗教, 文化등 모든 것과 도민의 生産方法, 生活意識 및 思考方法 등이 뭉뚱그려져 나타난다. 제주도민요의 각 편에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전부가 담겨져 있다¹⁸⁾

16) 좌혜경, 「민요를 통해본 제주민들의 세계인식」, 『白鹿論文』, 第13輯, 1997, 61쪽.

17) ———, 앞의 글, 34쪽.

18) 김영돈,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國語國文學論文集』, 第12輯, 1983, 44쪽.

또한 노동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 상이한 공동체 문화인 수눌음을 통한 공동작업 공동분배, 즈낭(절약)정신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성이 할 일을 여성이 하거나 젊은 사람이 할 일을 노인이 하기도 하는 勞働人力의 구분이 없었으며, 가족관계 구성까지도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한국 본토의 전통과 달리 제주의 노부모 들은 부자간에도 권위(權威)와 종속(從屬)이 없이 노인들도 거동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려¹⁹⁾는 정체성으로 나타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자연여건과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勞動謠의 量이 많고 그 種類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며 한 본토에 없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것들이 많다. 김매는 소리, 해녀 소리, 밭 밟는 소리 등은 타 지역에는 전무한 노동요들이며 관망요, 타작소리등도 타 지역에는 드물어²⁰⁾ 제주도는 토속민요에 비해 토속민요인 노동요가 주를 이루고 傳承者 性別로 보아서도 婦女謠가 압도적으로 많아 노동요인 경우 男曜 對 婦女謠의 비율은 약 1대 4에 이른다. 제주도 민요의 대부분이 부녀요인 이유는 여성의 활동력이 억척같고 근면 하다는 점, 제주도의 특수한 生産構造로 말미암아 유별하게 밭돌·방아작업이나 해녀작업이 예부터 성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質·量으로 놀라운 두 가지 노래가 여성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다는 점, 여성들이 치러야 할 노동의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점이다.²¹⁾

노동과 직결되어 구전되는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수 세대에 걸쳐 전통방식으로 일관되게 전승해온 기층문화로 제주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배어있는 무형의 전승가치가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

옛 선조들은 노동을 자연과의 조화로 노동의 힘든 과정을 노동요라는 개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들의 삶을 자연에 투영시키는 문학성으로 척

19)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7, 382쪽.

20) 조영배, 「濟州道 勞動謠의 리듬적 特性과 勞動行爲와의 관계」, 『濟州教育大學教論文集』, 第16輯, 1986, 121쪽.

21) 김영돈,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國語國文學論文集』, 第12輯, 1983, 51쪽.

박하고도 험난한 질곡의 세월을 삶의 지혜로서 연면히 살아왔다.

오늘날 물질만능과 인간의 존엄성의 결여되는 현 시대에 선조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인 문화유산을 시 공간을 초월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구현과 연행으로 후대에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승구도 및 정책적인 대안들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실질적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1) 노동요의 의의

노동이란 인간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최저 생계를 위한 일반적인 노동의 개념을 말하며 정신적 가치와 금전적 보상 등의 가치체계로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원시 이래 삶의 경제적 가치수단으로 과거와 현대에 노동의 구분과 노동의 질 등 가치기준만 다를 뿐 노동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동은 필수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생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농어업의 實相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으며²²⁾ 지역적 특이성이 짙게 깔려있고 그 사설 가운데는 문학성이 돋보이는 경우도 꽤 드러난다. 또한 노동의 독려수단으로 기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색이다. 노동요에서 여럿이 일을 치를 때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경우보다 신명나게 노래하면서 일하게 되면 일하는 동작을 가지런히 맞출 수 있어서 편리하고, 앞소리꾼이 일의 요령을 사설로써 지시해 주므로 일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으며, 첩첩 쌓여진 응어리를 풀어헤치는 기능으로²³⁾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는 자율적 기능으로 노동과 관련 없는 사설로 삶의 애환을 풀어내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

제주도 민요는 그 대부분의 문화적 공감대를 같이 하는 지역민들의 속성이 함축된 사설로 노동의 현장상황을 대변하듯 생동감이 빼어나고, 자

22)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0, 51쪽.

23) _____, 앞의 글, 41쪽.

신들의 삶을 표출하는 사설로 즉흥적이며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노동과 분리될 수 없었던 제주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 원시 노동요법인 ‘밭밟는 소리’를 만들어 내어 바람에 씨가 날리지 않도록 말들을 불러 모아 일손을 도왔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바다에 나갈 때 억척스럽게 노를 저으며 역동적으로 부르는 ‘해녀노젓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노동이었던 제주사람들은 삶의 애환을 소리로 풀어냄으로써 노동요 속에 신명풀이로 토속민요는 장소와 일의 특성에 따라 사설과 가락만 다를 뿐 생활 속에 일상화 되어 불려졌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농산노동요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농업 형태의 특징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토양은 투수성이 강한 화산회토로 뒤덮여 있어 하천은 대부분 비가 온 뒤에 말라버리는 건천이 된다.

수리시설을 갖출 수 없었기에 논농사는 물을 얻을 수 있는 해안가 몇 부락에서만 행해졌고 대부분의 마을은 밭농사에 매달려왔다.²⁴⁾

제주도민의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좁은 지역에서 다양한 노동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주도라는 섬의 특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업,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제주도 노동요는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으로 타 지역과 다른 문학성이 빼어난 사설들을 만들어내어 지역적 특성이 짙게 깔린다는 점에서 타 지방민요와 상이하다.

제주의 실정 및 제주민의 삶의 모습과 제주민의 생각을 온통 그 사설로 드러내며 나날의 찌든 삶에서 부딪히는 온갖 고달픔과 어려움, 외로움과 서러움을 노래하는 한편 오달진 의지와 자립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굳건한 마음가짐과 실정들을 나타내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철학을 드러내는가 하면 도민의 민간신앙과 풍토를 노래하기도 한다.²⁶⁾

제주사람들은 노동의 개념을 근면과 성실, 경제적 수단에 의미를 두었

24)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63쪽.

25) _____, 앞의 글, 106쪽.

26)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0, 46쪽.

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자강불패의 정신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에 맞서 공동체문화인 수눌음을 통한 즙냥(절약)정신과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돕는 이타심으로 연면한 세월을 살아내며 오늘의 제주를 만들어 왔다.

제주 여인들에 의해 불리는 해녀노래와 방아 찧는 소리의 사설에서 알 수 있듯이 척박한 생활터전에 인고의 아픔을 노동요의 사설로 승화시키며 노동의 수고로움을 금전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제주사람들은 자연에 맞서 초인적인 삶을 살아왔다.

제주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노동요로 표출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나아갈 세계관을 찾았다.

민요는 지역마다의 서민생활을 그대로 축약하며 한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 민요의 특성으로 구현된다. 제주도 민요의 특성은 곧 제주도의 특성²⁷⁾이다.

2) 제주도 노동요의 개념적 위상

민요는 민간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민중적인 구전문학으로 가락이 위주가 되면서 사설과 기능이 함께 따른다.

민요의 구성요소인 음악적 울동이 사설에 곁들이기 때문에 민중들은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새로이 인식하고 스스로를 고무한다. 민요는 연행적 요소, 음악적 요소, 사설적 요소 등 구성요소가 복합적이며 토속민요는 다른 민요에 비하여 상호관계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⁸⁾. 토속민요의 음악적 성격은 상당히 원초적(原初的)으로 민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감정표현 및 자체 지향적 정화기능으로 재생성 된다. 또한 생동감이 빼어나고 문화적 동질성 및 고유성을 유지하며 지역민들의 속성이 풍부하게 함축되어 나타난다.

토속민요의 사설은 매우 즉흥적으로 노동의 현장에 따라 직설적으로 표

27) 김영돈,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國語國文學論文集』, 第16輯, 1983, 44쪽.

28)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 대영인쇄사, 1996, 704쪽.

현되는 경향이 많으며 토속민요를 생성하고 구현 향유하는 계층이 기층민중²⁹⁾이라 연행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설이 자유롭게 바뀐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민요의 노다지라 할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요가 있다. 그러나 시대적 변이인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붕괴되자 현장성 기능(機能)에 따른 노동요는 단절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무형의 가치인식으로 원형보존을 위한 인위적 전승으로 전승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요는 일 자체의 노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노동요의 사설을 통해 질서와 공동체문화인 수놓음, 즈낭정신 등 사회 전체의 도덕적 규율을 담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속에서 생동하며 생성되는 것으로 살아있는 삶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노동요는 옛 선조들의 삶을 조명해볼 수 있는 민속적 기능으로서의 민중의 민속예술로서 민요 위상을 드러내며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창자에 의해 전승과 구현으로 전승 보존되고 있다. 노동요는 일의 지루함을 잊고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흔히 작업요로 전통사회에서 노동의 전 영역에 걸쳐 구비되어 있었고 노동의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였다.³⁰⁾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노동요는 제주의 실정 및 제주민의 삶의 모습과 생각을 온통 사설로 드러낸다. 나날이 찌든 삶에서 부딪히는 온갖 고달픔과 어려움 외로움과 서러움을 노래하는 한편 오달진 의지와 자립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튼실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³¹⁾ 굳건한 마음가짐과 실정을 속속들이 드러낸다. 제주도 고유의 ‘제주어’로 이루어진 노동요는 본토에서 불리어지는 타 지방 민요와 달리 독특한 제주도 특성을 나타낸다.

노동환경의 변화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무형의 가치인식으로 현대에 이르러 전통문화라는 무형의 콘텐츠로 구세대에서 현 세대로 전승되는 문화적 요소로서 노동요의 위상을

29) _____, 앞의 글, 705쪽.

30) 이창식, 「노동요의 기능인식과 무형문화재 지정검토」, 『韓國民謠學』, 第23輯, 2008, 219쪽.

31)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0, 46쪽.

드러내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의 옛 여인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자신들의 기구한 운명과 고달픔, 시집살이 등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승화시키며 불렀던 토속민요인 멧돌 방아노래의 사설 ①과 ②의 민요를 통해 그 문학과 노동요의 개념적 위상을 알 수 있다.

사설 ① 32) “오름(봉우리)에 돌광 지세어멍(본처)은
둥글어댕기당도33) 살을메34) 난다
눔의 첩광(남의소실) 소나무(소나무) 바람(바람)은
소린 나도 살을메 웃다
버룩버룩 살마꽃은
흐를 피영 웃어나진다.”

(뜻) 오름(봉우리)에 돌과 지세어멍(본처)는 굴러다니다가도 살 도리가나며
남의 첩과 소나무의 바람은 소리 나도 (요란하긴 해도) 살 도리가 없고
번듯한 반하꽃은 보기는 좋아도 하루 피어서 없어진다.

‘지세어멍’ 곧 정절이 곧고 집안일을 착실히 하는 아낙과 ‘오름’ 곧 한라산의 기생화산에 놓여진 돌을 적절히 비유하고 실속 없는 ‘첩’은 세찬 바람에다 비유한 노래로, 오름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돌은 지세어멍과 같고 소나무에 부는 바람은 첩과 같다.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양살 부림이 없이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현숙한 부인은 어느 봉우리의 비탈에 놓여져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제자리를 지키는 돌에 견주어지고, 간지럽게 아양이나 떠는 첩은 소나무에 부딪쳐 요란스러운 소리만 내는 바람에 견주어진다. 더구나 바람과 같은 첩은 하루 번듯이 피었다가도 곧 지고 마는 반하꽃에 다시 견주어짐으로서 뜻이 한층 더 뚜렷해진다.

32) _____,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國語國文學論文集』, 第12 輯, 1983, 57쪽.

33) 쓸모없이 굴러다니다가도.

34) 살아갈 방도가 생긴다.

민요의 소재 또한 평범한 일상과 자연에서 얻어지는 제주도 특성이 담긴 三多의 돌과 바람, 여자 등에서 찾았으며 지천에 깔린 돌의 우직한 성격과 정절을 지키는 당찬 제주의 어머니와 비유, 문학적으로 그려내는 문학성으로 노동요의 개념적 위상은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제주도 민요에서의 勞動謠의 優位性은 本土의 민요와 대비하여 볼 때도 썩 두드러지다. 제주도 민요의 대부분의 勞動謠의 까닭은 지리적 역사적인 窮乏과 苦難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일해야 살지,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천리가 도민의 신념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다.³⁵⁾

다음 사설 ② 을 통해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사설 ② 땃돌질 소리(ㄴ래고는소리) 자료: 故이명숙명창 제주민요음반

ㄴ래(땃돌고래) 보난 지남석(자석) 고래

이여 이여 이여도ㄴ래 (후렴)

설운(서러운) 어명³⁶⁾ 날 무사 낳건

간곤현택(가난한 집에)에 시집을 가난

하루 처녁(하루저녁) 밀 닷말 골앙

주먹상회 다섯을 얻어당

시아바님(시아버님) 두 개 드런

시아머님 두개 안네연³⁷⁾

하나 남은건 임반착 나반착 먹영

시동생덜은 아니나 주난

눈도 ㄴ물락³⁸⁾ 입도빠죽 현다

말물랑 삼년 귀막안 삼년

연삼년 을 살암시난 시집살이도

다 살아져라

(뜻) 서러운 어머니 왜(무슨 연유로) 나를 낳아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니, 하루 저녁 땃돌에 ‘밀’ 닷(다섯)말 같은 품 삶으로 상외‘떡’ 다섯을

35) 김영돈,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國語國文學論文集』, 第12 輯, 1983, 51쪽.

36) ‘어머니’를 뜻하는 제주어.

37) ‘드리다’ 의 제주어.

38) ‘노물락’ 눈치를 주더라.

얻어다가. 시아버님 두 개, 시어머님 두 개 드리고, 하나 남은 것 남
편과 나 반쪽씩 먹고, 시동생들은 주지를 얹으니 눈치를 주더라.

ㄴ래고는 소리(맷돌노래) 역시 제주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풀어내는 일
상의 이야기들을 소재를 한 민요로, 사설에서 그 시대상과 가족 간의 연
민, 부모에 대한 애틋한 심정, 시집살이 고충과 삶의 고단함이 배어있다.

제주도 노동요속에는 제주도의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 담아내고 있으며
노랫말인 사설 속에 감정적 요인, 정신적 요인, 도덕적 윤리의식인 내재적
가치로 자율과 자립 자존감은 세우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해안으로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통을 잇는 소중한 문화적
자원으로 노동요의 개념적 위상은 대단하다 할 수 있다.

2. 제주도 토속민요의 현황 및 실태

민요는 지역적 특성인 그 지역 민중들의 총체적 삶을 엿볼 수 있고 그 시대상과 지역민의 삶의 의식문화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주도는 지리적 자연 환경적 특성상 곳곳에 부락 단위인 해촌을 중심으로 농경, 목축, 어업을 생업으로 하여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하에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부락 각 집 소유의 牛馬를 공동 방목하는 부락 공유의 공동목장, 공동어장, 수눌음을 통한 협동정신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 나갔다.

제주도의 땅은 농업에 불리한 화산회토로 자갈 따위의 화산 쇄설물이 지표에 깔렸으니 이른바 石多의 풍토와 겨울철에 폭풍일수가 연중 1/3에 이르는가 하면 흐린 날씨가 연간 180일에 달하는 風多의 섬으로 이러한 기상조건은 지척민빈을 부채질해 왔다.

‘섬’이라는 격절성 때문에 제주민에게는 고도의 자급생활이 강제되었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완결성이 있어야 했다. 자기 완결성은 생명과 직결되면서 가족 노동력을 전력투구해도 가족의 부양에 불충분하므로 여성의 과중노동이 불가피했으며³⁹⁾ 이런 실정에 도민의 성정은 자연히 자주 강인, 진취, 신용, 인정 등 복합구조와 공동체문화인 수눌음의 전통의 미덕으로 ‘배품과 배품’의 관계를 노동은 노동으로, 쌀은 쌀로, 인정은 인정 등의 등질등가(等質等價)로 남에게 가능한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습성을 지니게 되었다.⁴⁰⁾

지리적 환경적 특성은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제주사람들의 일상도 노동요의 사설을 통해 표출하며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제주민요는 그 대부분이 노동요로 제주도 민요의 주종을 이룬다. 제주도는 단일 문화권을 이루고 있어 생업환경이나 자연환경, 문화교류의 형태에 따라 민요 분포나 그 음악적 성격이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39)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7, 207쪽.

40) ———, 앞의 글, 256쪽.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노동요인 경우 제주도 전역에 걸쳐 밭밟는 소리, 사대소리, 타작질 소리 등 민요가 널리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표 1> 제주도 (濟州道) 민요분류 ⁴²⁾

구 분			
음 악 외 적 기 능 요	노 동 요	농업요	긴 사대소리. 자진 사대소리. 타작질 소리. 밭 밟는 소리. 밭 가는 소리. 따비질 소리. 보리이삭 훑는 소리. 흙덩이 부수는 소리. 밀레질 소리. 씨레질 소리. 김매는 담불소리.김매는 흥애기 소리. 상사소리. 더럼소리. 소모는 소리
		어업요	해녀노젓는 소리. 멸치후리는 소리. 떼배 젓는 소리. 갈치낚는 소리. 자리돔그물질 소리. 배내리는 소리
		제분요	방아질 소리. 맷돌질 소리. 연자방아질 소리
		임업요	꿀베는 소리. 도끼질 소리. 톱질 소리.나무 내리는 소리
		관망요	망건 짜는 소리. 탕건 짜는 소리. 양태짜는 소리. 갓모자 짜는 소리
		잡역요	성돌굴리는 소리. 방앗돌굴리는 소리. 집줄농는 소리. 풀무질소리(발판풀무. 토풀무. 똑딱풀무. 흙질 물꾼 소리. 짚 두드리는 소리.흙 이기는 소리)
	의 식 요	장례 의식요	행상소리. 영귀소리. 달구질소리. 진토굿소리. 꽃염불소리
		굿 의식요	서우제 소리, 성주 소리, 덕담 소리
		불교 의식요	회심곡
		자장가	애기구덕 혼드는 소리
음악내적 기능요	오돌또기 .이야흥타령. 너영나영. 봉지가. 산천초목. 용천검. 길군악. 사랑가. 중타령동풍가.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41) 북제주군,『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예술기획, 2001, 5쪽.

42) 북제주군,『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북제주군 전래민요 악보집, 예술기획, 2001, 5쪽, 표 재인용

제주도 민요의 분류에서 민요는 음악외적 기능요와 음악내적 기능요로 분류되며 음악외적 기능요는 다시 노동요와 의식요로 분류된다.

노동요를 세분화 한다면 농업요, 어업요, 제분요, 임업요, 관망요, 잡역요로 분류되고 의식요를 세분화 한다면 장례의식요, 굿 의식요, 불교의식요로 나눌 수 있다. 농업요의 분포를 보면 논이 드물고 밭농사 위주로 논농사에 따른 모내는 노래, 논매는 노래, 벼 베는 노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화전을 개간하거나 갈기 힘든 밭을 일구면서 부르는 따비질 노래와 조를 갈 때 좁씨를 뿌린 다음 흙을 덮고는 마소를 앞세워 밭을 단단히 밟으면서 부르는 밭밟는 노래, 밭을 갈고 난 다음 덩어리진 흙덩이를 곱방메로 부수면서 부르는 흙덩이 바수는 노래가 제주도에서 유난히 전승됨은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푸석한 뜬땅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적합한 이유로 제주도의 유다른 지질⁴³⁾이 농업생산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는 밭 넓이가 넓고 농사가 극성스런 덕수리(남제주군 안덕면) 같은 몇 지역에서만 밭가는 노래가 희귀하게 전해지며 제주도의 김매는 소리는 밭매는 노래를 가리키는데 그 종류도 가락도 여럿이다.

본토에서와 한 가지로 타작 노래는 주로 보리타작할 때 불리며 보리훔는 노래는 희귀하다. 마소 모는 노래는 들일을 오가는 길에서 마소를 앞세워 모는 노래이고 밭밟는 노래 역시 좁씨를 뿌린 밭을 마소를 앞세워 모는 노래이어서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가락과 사설의 다르다.⁴⁴⁾

제주도의 여러 노동요의 분포를 보면 어느 마을에서든 전해지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만 전승되는 노래들도 있다.

맷돌노래, 방아노래, 밭밟는노래, 밭매는노래, 타작노래, 마소모는노래, 풀베는 노래등은 제주도 전역에서 산촌 해촌 가릴 것 없이 어느 마을에서든 들을 수 있는 민요로 농어촌 어느 마을을 가든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⁴⁵⁾

43)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1, 62쪽.

44) _____, 앞의 글, 63쪽.

45) _____, 앞의 글, 65쪽.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는 밧벌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검질매는 소리, 출비는 흥애기 소리는 근대화와 산업화로 노동과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남았으나 선조들의 전통방식인 인위적 전승으로 무형문화재 공개공연 및 체험강습, 시연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 외 어업요로 해녀노래가 전승되는 한편 남성 어부들도 드물게 노를 저으며 부르는 배젓는 노래가 있다.

백사장이 질펀히 깔린 김녕리(북제주군 구좌읍)해안 마을에는 한여름 그물로 멸치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멸치후리는 노래가 전해지며 마을에 따라서 ‘터우’ ‘테배’라고 불리는 뗏목을 타고 ‘듬북’ 따위의 해조류를 캐면서 뗏목젓는 노래도 불린다. 고기낚는 노래, 갈치 낚는 노래도 드물게 전승된다.⁴⁶⁾

잡역요로 방앗돌 굴리는 노래가 있으며 마을 밖에서 연자매(물방에. 물 7레)를 만들기 위해 공동 작업으로 연자매를 만들 ‘웃돌’과 ‘알돌’을 마련하고 마을까지 끌어오는 雲半 勞動謠이다. 이 노래는 남성 집단에 따른 민요라는 점이 유별난데 덕수리, 몇 마을에서만 확인될 뿐⁴⁷⁾ 매우 희귀하다.

관망요는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주시를 중심으로 갯일, 갯모자, 갯양태, 탕건, 망건작업이 부녀자들 사이에 성행했으며 제주여인들의 주요 부업으로서 생계를 잇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분요는 곡식을 뿜고 쏘고 가는 노래들로 대표적인 노래인 땃돌·방아노래로 사설의 대부분은 노동과는 관련이 없는 민간의 폭넓은 실정과 정서를 노래한 것들이어서 값지다고 보고 있다.

호젓한 방안이나 마당 구석에서 그것도 주로 밤의 정적 속에 이루어지던 땃돌질과 더불어 쏘는 사설은 출중해 고전작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⁴⁸⁾.

잡역요는 불미노래, 집줄놓는노래, 베틀노래등 잡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으며 현재 전승되는 잡역요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가 제주도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고 있으며, 불미노래도 제주도무형문화

46)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1, 64쪽.

47) _____, 앞의 글, 65쪽.

48) _____, 앞의 글, 63~64쪽.

재로 지정되어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인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덕수리의 불미공예는 제주사람들의 철제 농기구 및 철제 생활도구를 만드는 수단으로 이어져 온 기층문화로서 농경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의식요로는 근래까지 남겨진 장례의식요인 運柩에 따른 행상노래 및 장지에서 山役이 치러질 때 달구노래와 진토굿 파는 노래가 불린다. 봉분을 둥그스럽게 쌓아 올리는 흙을 ‘진토’라 하며 ‘진토’를 파내는 구덩이를 ‘진토굿’이라 한다.⁴⁹⁾

장례의식요는 시대적 변이에 따른 제주사람들의 의식변화로 기능적 측면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의식요 중 꽃염불소리 만의 전통방식의 행상재현으로 관객을 위한 공연무대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

1)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정 노동요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가 큰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2조 2항을 통해 무형문화재 민요를 정의 하면 지정 민요는 한국에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전통예술형태 곧 구비(口碑)성향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⁵⁰⁾이며 민족의 정서와 삶의 고스란히 배어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과거 해방 이전 전통사회에서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제도권의 틀에서 무형문화재를 길이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고⁵¹⁾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이 달라졌다.

제주도지정 문화재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70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제1절 14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49) _____, 앞의 글, 67쪽.

50) 이창식, 「노동요의 기능인식과 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韓國民謠學』, 第23輯, 2008, 214쪽.

51) 양진환, 「중요무형문화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공회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쪽.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 한다⁵²⁾ 로 고시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도와 시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희소성 등을 고려한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발굴하여 무형의 가치로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인위적 전승으로 전승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가치인식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지역의 성향에 따른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이 되며 예술적 활동이나 인간의 정신세계를 구현한 인류의 전통적 맥락으로⁵³⁾ 맥을 이어오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들을 말한다.

제주도는 지리적, 자연 환경적 특성상 본토와 떨어진 섬으로 고유의 생활양식과 언어, 가치관등 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문화유산들이 있으며 제주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다.

분야별로 음악분야 인 노동요와 의식요,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했던 생활상의 필요에 의한 공예 및 기타분야 등 제주도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도지정무형문화재, 유·무형의 향토문화유산이 있다.

제주도에서 지정되어 보존되는 문화재들은 제주지역의 고유의 특성인 전통방식에 따른 무형의 가치로 제주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다양한 방식의 무형문화재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무형문화재지정 노동요의 시설에서 그 시대상의 총체적인 생활방식과 전승가치를 알 수 있다.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는 노동요의 분류 현황을 알 수 있다.

52) 제주도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정 2007, 11, 21. 조례 제296호, 일부개정 2012. 4. 6. 조례 제 897호.

53) 홍건표, 「우리나라무형문화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중요무형문화재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쪽.

<표 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분류⁵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음악 분야)	도지정 문화재 (공예 및 기타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6호: 망건장 · 제67호: 탕건장 · 제71호: 칠머리당굿 · 제95호: 제주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해녀 소리 · 제9호: 방앗돌굴리는 소리 · 제10호: 멸치후리는 소리 · 제16호: 제주농요 · 제17호: 진사대 소리 · 제18호: 귀리겉보리농사일 소리 ·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영감놀이 · 제3호: 오메기술 · 제5호: 송당리 마을제 · 제6호: 남읍리 마을제 ·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 · 제8호: 정동벌립장 · 제11호: 고소리술 · 제12호: 고분양태 · 제13호: 제주큰 굿 ·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 제15호: 제주불교의식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리어졌던 노동요로 제주의 실정 및 노동의 상황 등을 나타내며, 자연과 일상의 이야기들이 노동요의 소재가 되어 제주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들어 있다.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전승되는 종목 중 음악분야 인 노동요는 제1호 해녀노래, 제9호 방앗돌굴리는소리, 제10호 멸치후리는소리, 제16호 제주농요, 제17호진사대소리, 제18호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기타분야인 제2호 영감놀이, 제3호 오메기술 제5호 송당리마을제, 제6호 남읍리마을제,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 제8호 정동벌립장, 제11호 고소리술, 제12호 고분양태, 제13 제주큰굿, 제14호 제주도허벅장, 제15호 제주불교의식요로 나눌 수 있다.

도 지정 문화재중 노동요는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독려수단으로 삶의 애환을 승화시키면서 불렀던 민요로 사설과 가락만이 남았으나 전통방식

54) 고창석 외 28명,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 광문당, 2009, 268~305쪽. 글, 표로 구성함.

의 구연에 의한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한 축인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의 근원적 속성인 본질로 자발성, 자율성, 독창성, 다양성 등 시대흐름에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자연적, 인위적으로 창조, 계승되어 오며 지역 사회와 민족, 역사와 전통 속에 창조되며 생성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60년대의 문화유산 전통문화 보존·계승 중심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 창작활동 활성화에 바탕을 둔 예술가 지원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전략으로 문화공간 시설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의 이루어지고 2000년대 들어와 수요자 및 향유자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⁵⁵⁾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노동요는 실질적인 노동의 현장에서 불리어졌던 선조들의 정체성이 배어 있는 전통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이어져야 할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고유의 ‘제주어’로 된 사설의 내재적 가치 등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무형의 가치로 시공간을 초월한 전승강습 및 전승공연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승의 주체인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전통방식의 재현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경쟁력 가치와 원형 보존으로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 제주도 토속민요의 기능적 분류

민요는 서민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의식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구전문학으로 연행현장의 기능의 소멸, 전승양상에 따라 민요의 생성, 변천 과정이 달라지며 놀이적 요소와 집단노동이 기능적 요소에 따라 지역별 민요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민요 분류의 논의는 학계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민요의 분석은 대체로 문학적, 음악적, 민속적 속성⁵⁶⁾으로 그 측면에

55) 고희승,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연구」, 추계예술대학 석사학위논문, 2010, 10쪽.

56) 이창식, 「노동요의 기능 인식과 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韓國民謠學』, 第23輯, 2008, 217쪽.

따라 분류의 기준도 다를 수 있다. 제주도 노동요는 본토와 떨어진 지리적, 자연 환경적 특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리어졌던 기능성 위주의 토속민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능성(機能性) 분류별 민요로 보아 제주 지역민의 특성과 민요의 실상 및 존재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지역의 기능성(機能性)토속민요의 분류를 알 수 있으며 전승되는 노동요를 중심으로 표를 구성하였다.

<표 3> 제주도 민요의 기능성(機能性) 분류⁵⁷⁾

구 분			민 요 명
음 악 외 적 기 능 요	노동요	농업요	밭밟는소리(밧볼리는소리). 마당질소리 긴사대소리. 자진사대소리(검질매는소리). 따비질소리. 밭갈는소리 흙덩이바수는 소리.
		어업요	해너노젓는소리, 멸치후리는소리, 갈치낚는소리
		제분요	방아짙는소리. ㄴ래(맷돌)고는소리.
		관망요	망건짜는소리.
		잡역요	방앗돌 굴리는 소리, 똑딱 불미노래
	의식요	굿 의식요	긴서우젯소리, 자진서우젯소리, 회심곡(불교의식요)
		장례 의식요	꽃염불소리. 행상소리
음악내적 기능요(통속민요)			오돌또기. 영주십경. 이야흥타령. 너영나영. 봉지가. 산천초목. 용천검. 동풍가.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토속민요의 분류를 보면 음악외적 기능요와 음악내적 기능요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능별로 세분화 한다면 농업요, 어업요, 제분요, 임업요, 관망요, 잡역요로 분류가 되며 의식요는 장례의식요, 굿 의식요, 불교의식요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도 전역에서 불리어지는 농업요의 분포를 보면 논이 드물고 밭농사

57) 북제주군,『아름다운 전통의 소리』,북제주군 전래민요 악보집, 예술기획, 2001, 5쪽, 표를 참고로 했 으며 기능면에서 전승되는 민요 위주로 표를 작성 하였다.

위주로 논농사에 따른 모내는 노래, 논매는 노래, 벼베는 노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화전을 개간하거나 갈기 힘든 밭을 일구면서 부르는 따비질 노래와 조를 갈 때 줍씨를 뿌린 다음 흙을 덮고는 마소를 앞세워 밭을 단단히 밟으면서 부르는 밭밟는 노래 밭을 갈고 난 다음 덩어리진 흙덩이를 곱방메로 부수면서 부르는 흙덩이 바수는 노래가 제주도에서 유난히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제주도의 지형은 화산회토로 비가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건천으로 이루어져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적합했으며, 돌이 많고 푸석한 뜬땅이 제주도의 유다른 지질특성으로 농업의 생산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제주도에는 밭 넓이가 넓고 농사가 극성스런 덕수리(남제주군 안덕면) 같은 몇 지역에서만 밭가는 노래가 희귀하게 전하며 제주도의 김매는 소리는 밭매는 노래를 가리키는데 그 종류도 가락도 여럿이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되어 전승·보존되는 밭볼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검질매는 소리, 출비는 흥애기 소리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며 동부지역의 작은 사대소리와 긴 사대소리 등 마을단위의 지역에 따라 사설과 가락이 다르게 불려진다.

제주도에는 많은 마을이 바닷가를 뱅 둘러가며 웅기종기 들어서 있고 해안마을에는 공동어장의 공동작업으로 사시사철 물질하는 해녀들이 산다.⁵⁹⁾

어업요로 해녀들에 바다로 나가 물질하기 전 역동적으로 배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노젓는 소리가 전승되고, 백사장이 질펀히 깔린 김녕리(북제주군 구좌읍)해안 마을에는 한여름 그물로 멸치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멸치후리는 노래가 전해진다.

잡역요로는 방앗돌굴리는 노래로 연자매(물방에. 물꺾래)를 만들기 위해 마을 밖에서 공동 작업으로 연자매를 만들 ‘웃돌’과 ‘알돌’을 마련하고 마을까지 끌어오는 雲半 勞動謠로 이 노래는 남성 집단에 따른 민요라는 점이 유별난데 덕수리등 몇 마을에서만 확인될 뿐⁶⁰⁾ 매우 희귀하다.

58)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0, 62~63쪽.

59) _____, 앞의 글, 101쪽.

60) 안덕면 덕수리에서 민요를 발굴하여 198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바 있다.

연자매의 기능은 방앗돌의 알돌과 웃돌 이 교차로 탄 이삭을 연자매로 돌려 껍질을 벗기는 작업으로 탈곡을 한다.

연자매 작업은 마소의 힘을 이용하여 장시간 행해지는 격렬한 일이었다. 말이나 소 한 마리에 2인이 사람이 동원되는 것이 이 작업이 기본으로 마소를 모는 사람에 의해 연자매노래가 불린다. 밀방애잡(연자매계)이라는 계를 조직하여 연자매를 운용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했다. 연자매가 나오기 이전에는 도리깨나 마깨(방망이)로 탈곡을 했었다. 연자매로 탈곡을 하면서 搗精(좁쌀 만들기)도 연자매로 만들게 되었다.

보리의 탈곡을 도리깨질 또는 마소의 발을 빌려 밟아서 하고 남방애나 밀방애 에서 껍질을 벗겼으나 조의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연자매에 의존한다. 연자매의 노래의 歌唱은 男性 勞動謠이다.

작업이 격렬하고 또한 마소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일로써 채경을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마소에게 이끌게 하는 強度질은 일들은 男性이 그리고 諸般이 附隨的인 일과 뒤처리 하는 것은 세심한 여성이 맡게 된다.

이러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연자매 노래는 불리어지므로 男性 勞動謠의 몇몇 노동요 중 남녀 호흡이 잘 이루어지는 노래로써 遜色이 없다.⁶¹⁾

관망요는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주시를 중심으로 갯일(갯모자, 갯양태, 탕건, 망건작업)이 제주 여인들의 주요 부업으로서 생계를 잇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망건노래, 탕건노래, 양태노래의 기능의 전수는 중요 무형문화재지정 보유자에 의해 인위적 전승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적 측면의 양태노래와 탕건노래는 이미 사라졌다.

관망요중 망건노래는 사설과 가락만이 남아 가창자에 의해 무대공연을 통해 전수되고 있으며 노래의 사설에서 그 시대상과 생활고, 시집살이 다난한 실정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 선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자료가 되고 있다.

제분요는 곡식을 뿜고 쏘고 가는 노래들로 대표적인 노래인 맷돌·방아

61) 김영돈, 「제주도 연자매와 그 民謠 研究」, 『民謠論輯』, 創刊號, 1988, 118쪽.

노래로 대부분이며 사설은 노동과 관련 없는 민간의 폭넓은 실정과 정서를 노래한 것들이어서 값지다고 보고 있다. 잡역요는 불미노래, 방앗돌굴리는 노래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덕수리의 불미공예는 제주사람들의 철제 농기구 및 철제 생활도구를 만드는 한 수단으로 이어져온 기층문화로서 농경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를 보면 기능면에서 효율적인 노동을 위해 공동작업, 공동관리, 공동분배 등 수눌음을 통한 공동체문화로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강인한 정신으로 척박한 땅에서 오늘의 제주도를 이루어 냈음을 알 수 있다.

옛 선조들의 삶의 숨결이 느껴지는 전통적인 삶의 생활양식은 노동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사라지고 가창자의 기억의 재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무형문화재 전승공연 및 시연 등 인위적 전승이 없다면 옛 선조들의 삶의 방식은 점점 더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다.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져오는 전통문화의 전승은 갈수록 퇴색화되고 있다. 현실적 난제와 제도적인 지원정책 등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전수자들의 관심부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무형의 가치로 전승,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유·무형문화재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다.

근대화와 노동환경이 변화, 시대적 정체성 등 시대적 변이로 거스를 수는 없지만 옛 선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배어있는 선조들의 삶의 양식은 그 시 대상을 반추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자료로 남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현 시대 흐름에 맞는 전승구도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된다면 사라져가는 전통방식의 원형보존과 노동요 사설의 내재적 가치로 제주사람들에 의해 변용되면서 전승과 보존으로 후대에 이어질 것이다.

3. 노동요의 가창방식과 사설의 의미

민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관련 연행과 사설, 선율과 장단이다. 노동요가 대부분인 제주도 토속민요에서 연행은 곡이 불리게 되는 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노래의 호흡 장단의 구성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창방식에 따라 유절형식과 교환창이 사용되기도 한다.

민요는 노래마다 창곡과 사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틀을 가지고 있어⁶²⁾ 노동요의 사설이 노래에 일정한 율격을 형성시켜 확장과 축소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해녀노트는 소리의 가창기연(歌唱基緣)을 볼 때 해녀들의 물질 작업하러 돛배를 타고 물질 작업장까지 오갈 때나 출가(出嫁)할 때 현장 상황에 따라 사설이 다르며, 역동적으로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동의 독려기능을 돕는다. 이렇듯 민요란 것은 일정한 연행과 상황이 사설을 짓고 사설이 소리의 장단 고저를 얻어 하나의 요(謠)가 되어 불리는 것으로 실제현장에서 연행 동작이나 사설이 변화로 선소리를 여러 사람의 주고받기도 하고 한 사람의 선소리에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유절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민요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말과 소리를 가지고 적절히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는 일종의 원리, 틀 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며⁶³⁾ 연행인 기능과 음악 및 사설이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유기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그 어느 하나도 민요를 인식하는데 소홀이 할 수 없다는 유의미성을 뜻한다.

노동요의 사설 속에는 노동의 의의를 부여하여 노동의 힘든 상황을 표출하기도 하고 노동과 직결된 가사로 풍년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 자신들을 위로하거나 노동과는 무관한 가창자의 심정을 담아 노동의 고된 실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화제의 전환을 의도하기도 한다.

제주도 노동요는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선창이 소리는 다른 노래를 부른

62)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129쪽.

63) 오남훈, 「제주도 토속민요의 선율양상 연구」, 2010,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쪽.

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 공동으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앞소리와 뒷소리의 관계에 따라 先後唱과 交換唱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며 이중 교환 창 가운데는 앞소리를 이어받아 노래를 전개시켜가는 이어받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물질(64)을 위해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노랫조는 소리처럼 앞소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반복하기 유형의 있다.

제주민요의 가창방식의 특징은 연행상황과 분위기, 조건에 따라 독창, 선후창, 교환창의 방식으로 가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⁶⁵⁾

민요의 사설 속에 노동과 직결된 가사로 노동을 독려하는 노동촉진의 효과와 노래에 흥을 더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힘을 더하게 하는 조흥정신분발의 효과⁶⁶⁾ 마당질소리처럼 전통방식으로 도리깨로 내리치면서 노동에 질서를 부여하여 완급의 효과를 주는 동작의 일치 등 질서부여의 효과로 제주사람들은 일의 진행과 효율성을 위해 상황에 맞는 사설들을 이끌어내었다.

사설 ③의 예로 노동의 진행 상황과 사설의 독려기능을 알 수 있다.

사설 ③ 김매는소리 제주도무형문화재 16호 제주농요 故이명숙명창 제주민요

어기여라 상사대로다 (후렴)

검질 짓고 굴 넣은 밧디

소리(민요)로나 우경(이기고)가게

앞 명에랑 들어나 오고

뒷 명에랑 나고나 나가라

흔 소리에 두 줌 반씩

두 소리에 석 줌 반씩

곶은쇠(구부러진) 골갱이로 박박 메고 나가자

아무리 허여도 허고야 말일

허당 말민 놈이나 웃나

모다 덥싸 모다 덥싸

젯군⁶⁷⁾ 어른들 모다 덥싸

64) 소라,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함.

65)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172쪽.

66) 좌혜경, 「민요를 통해본 제주민들의 세계인식」, 『白鹿論文』, 第13輯, 1997. 35쪽. 김대행 「제주도 민요 인식」, 『濟州道言語民俗論輯』,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 제주문화, 1992, 169~194쪽, 재인용.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기전에
양긋 잡아 모깁달 나그릅서

(뜻) 잡풀이 우거진 골(골)널은 밭디 (밭에)
소리(민요)를 부르면서 노동의 힘든 상황을 이기고 나가자
앞 명에랑 (앞 밭머리)에 들어나 오고 뒷 명에랑(뒷 밭머리랑)나고나
나가라
한 소절 부를때 두줄 반씩, 두소절 부를때 석줄 반씩
굽은쇠 골깁이로 김을 야무지게 메고 나가자
아무리 하여도 내가 해야 될 일
하다가 중단하면 남의 웃을 일이다
모다 덥서 제군어른들 모여들 들어서
일락서산에 해 지기 전에, 양 끝으로 마무리 하고 나가자.

예시 ③의 김매는 소리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6월에 ‘김’을 매야 한다. 제주도는 화산토로 잡초가 잘 자라 소나기가 한번 내리고 나면 어제 댔던 밭에서 오늘 또 잡초가 돌아난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밭을 매기 위해 수눌음인 품앗이로 한 사람이 자기 밭에서 열흘 동안 매야 할 ‘김’을 한데 모여서 매면 닳새만에도 모든 밭을 맬 수 있다.

초벌에는 방고름 검질 이라 하여 아무렇게나 난 싹을 골아주고 유월 염천이란 말처럼 뜨겁게 내리쬘는 햇빛에 아낙네들이 흰수건을 쓰고 검질매는 소리로 노동의 수고로움을 이겨나가곤 했다.

제주도의 노동요 가운데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이 밭매는 소리로 사데소리, 아웨기, 흥애기 소리이다.

사설에서 노동이 독려기능과 수눌음 정신, 긍정적 사고로 상황을 전개해가는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알 수 있으며 잡풀이 우거진 고랑이 넓은 밭에서 ‘일천간장 댔힌 시름 사데 소리로 풀고 가자’는 밭 매는 가창자의 소리에서 잠시나마 마음속의 시름을 덜어주고 노동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

67) 제주도 공동체문화인 수눌음으로 한 사람의 열흘 동안 매야할 김(잡초)을 열두어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어 밭의 김을 메고 난후 다른 밭으로 수눌어 가며 일손을 돕는 두레 형태의 ‘계’조직을 말함.

Ⅲ. 제주도 무형문화 지원정책 현황

1. 제주도무형문화 지원정책

문화유산으로서의 무형문화재 제도 및 정책은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보호법」¹조의 내용에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보급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고, 1970년 보유자 인정제도를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⁶⁸⁾

1982년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구분하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과거 문화재 중심의 보존에서 문화재 경관과 환경까지 보존하는 정책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재 구역 확대지정, 민속마을 지정,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의 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문화재보호법은 1999년 원형 보존주의가 문화재관리에 삽입이 되었고 현안 중심으로 부분수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⁶⁹⁾

문화재는 한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의 구체적인 표상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시대적 상황과 미래의 전망을 고려할 때 무형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창조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형문화지원 주요정책을 알 수 있다.

68) 양진환, 「중요무형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공회대학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3쪽.

69) _____, 앞의 글 13쪽,

<표 4> 무형문화정책의 변천⁷⁰⁾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연도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정책 원형보존 (문화재 보호법 제3조)	국가, 지자체의 주요 책무 (문화재 보호법 제4조)
1960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 1962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위원회 제공포 1963년 문화재관리 특별회계법 제정 1964년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지정, 범국민적 인식제고 및 정책마련	문화재보존 관리 및 현황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 정착시켜 나간다.
1970	보유자 인정제도 마련. - 중점보호주의 지방문화재 지정범위 확대 1970년 동산문화재 등록 1972년 문화재 보존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으로 권한 부여 확대.
1980	1982년 문화재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 1983년 국가주도 전수교육제도 도입으로 보존 과 계승, 무형문화재 정책목표를 위한 시스템 완비	문화재 관리 행정 분야 발굴지정. 후계자육성. 문화재보급으로①지정과 인정 ②기록보존 ③전수교육지원 ④전승지원금 지원 ⑤공개행사지원 ⑥ 보급과 선양
1990	1990년 조선왕궁 복원 정비사업 착수 1995년 석굴암, 불국사 등 우리나라 최초 세계문화유산등재로 국가위상 강화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지정 1999년 문화재 지표조사제도 사전협의제 도입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가꾸려는 국민 의식 변화와 기구 확대 개편으로 문화유산의 세계화등 문화행정과 제도의 비약적 발전을 이룸
2000	2000년 문화재 영향 평가제도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으로 훼손. 멸실 위기의 근대문화유산 등 보호기반 확대. 2005년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2008년 문화재방재 시스템 구축.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각 부문별 정책의 고도화, 선진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혁신 모색. 문화유산의 내재적가치 문화재재난시스템 구축. 안정적 재원확보와 예산운용의 신축성(탄력성)제고, 건설공사도입 인, 허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의무화

70) 이유범 외 9명 공저, 『‘누루’ 제주문화재지킴이 지도교사 직무연구』, 제주: 제주문화재지킴이, 2011, 154~163쪽. 표로 구성.

과학기술의 문명은 문화 복제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전통을 중시한 공연물의 문화콘텐츠로서 주목받는 것이 무형문화이다.

무형문화지원정책이란 이렇듯 당위성과 미래지향성등 문화의 고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의 본질인 내재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서 문화재가 지니는 고유가치인 문화재적 가치, 교육·학문적 가치 미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공익적 가치로 지역문화예술이 발전을 위한 공연예술 활동지원 및 유·무형문화유산들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제주도무형문화재 현황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⁷¹⁾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눌 수 있다

문화재는 지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누어지며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체계화한다.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현황을 알 수 있다.⁷²⁾

71) 홍건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쪽.

72) 제주도청 홈페이지, 「열린 행정 통계정보 문화관광스포츠분야」, 2012년 주요행정총람. 표, 재인용.

<표 5> 국가지정 문화재

(단위 : 건)

구 분	계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 승	중요 민속자료	문화재	등록 문화재
계	97	6	6	44	6	5	9	21
도 일 원	2			2				
제 주 시	47	5	5	23		4	3	7
서귀포시	48	1	1	19	6	1	6	14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일원 등에서 보물 6건, 사적 6건, 천연기념물 44건, 명승지6건, 중요민속자료5건 문화재 9건과 등록문화재지정 21건으로 총 97건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6> 도 지정 문화재

(단위 : 건)

구 분	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 념 물 (사적,수목, 지질, 경관)	민 속 자 료	문화재 자 료
계	268	31	19	129	81	8
제 주 시	171	20	13	83	48	7
서귀포시	97	11	6	46	33	1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 지정 문화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유형문화재 31건, 무형문화재 19건, 기념물(사적, 수목, 지질, 경관)129건, 민속자료 81건, 문화재자료 8건등 총 268건이 있다.

<표 7>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73)

(단위 : 명)

구 분		계	명 예 보유자	보유자	보 존 단 체	조 교	전 수 장학생	일 반 전수생	이수생
합 계		78	3	20	5	13	25	0	12
국 가 지 정	소 계	27	3	5	1	3	3		12
	갯일(양태)	4		1			1		2
	갯일(총모자)	4	1	1					2
	망 건 장	3	1	1					1
	탕 건 장	5	1	1			2		1
	제주칠머리당굿	10		1	1	2			6
	제주민요	1				1			
도 지 정	소 계	51		15	4	10	22		
	음 악	19		5	1	2	11		
	놀이·의식	13		1	2	2	8		
	공예기술	15		7	1	4	3		
	음 식	4		2		2			

자료 : 문화정책과(☎ 710 - 3424)

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종목별 기·예능보유자의 전수체계를 살펴 볼 수 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갯일(양태) 보유자1명, 전수장학생 1명, 이수생 2명 등 총 4명으로 구분이 되고, 갯일(총모자) 명예보유자 1명, 보유자 1명, 이수생 2명으로 총4명, 망건장 명예보유자 1명, 보유자 1명, 이수생 1명으로 총3명, 탕건장 명예보유자1명, 보유자1명, 전수장학생 2명, 이수생 1명 등 총5명,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1명, 보존단체1명, 조교 2명, 이수생 6명, 제주민요는 전수조교 1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예능 전수체계를 살펴보면 음악분야인 경우 보

73) 제주도청 홈페이지, 「열린 행정 통계정보 문화관광스포츠분야」, 2012년 주요행정총람. 표, 재인용.

유자 5명 보존단체 1명, 조교 2명, 전수장학생 22명으로 총 51명, 놀의. 의식분야 보유자 1명, 보유단체 2명, 조교 2명, 전수장학생 8명 총 13명, 공예기술 보유자 7명. 보유단체1명, 조교 4명, 전수 장학생 3명, 음식은 보유자 2명, 조교 2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란 전통문화유산으로 그 시대상의 삶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류역사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문화재를 통해 조상들의 살아온 삶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며, 그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반추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흐름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부재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실태가 취약하고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희박해지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문화재를 파괴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현황만 보더라도 보유자와 전승자들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긍심과 전승노력이 없다면 무형의 전승가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가치보다 시대흐름에 쉽게 잊혀져가는 현상이 지대할 것이다.

위 <표 7>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승공개 공연 및 시연을 통해 오늘날까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승되는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문화재이다.

무형문화재1호 해녀노래는 1971년 8월26일 지정되었으나 1대 보유자인 안도인씨 사망으로 2대 보유자 강등자, 김영자로 재 지정되었으며, 무형문화재 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1대 보유자 강인호씨 사망후 제2대 보유자 김영남으로 재 지정되어 현재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전승의 맥을 있고 있다. 제10호 멸치후리는 소리 보유자 김정성씨 사망으로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이 전승을 하고 있으며, 제16호 제주농요1대 보유자 이명숙씨 사망으로 전수조교와 이수자가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공연 및 무형문화재 공개공연 제주농요 전승강의로 제주농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표 8>을 통해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종목들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8>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⁷⁴⁾

	종 목	명 칭	지정 년월일
1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1대보유자 사망~2대보유자 지정)	1971. 8. 26 (2005. 4. 13 재지정)
2	무형문화재 제2호	영감놀이	1971. 8.26
3	무형문화재 제3호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1990. 5.30
4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리마을제	1986. 4.10
5	무형문화재 제6호	납읍리마을제	1986. 4.10
6	무형문화재 제 7호	덕수리불미공예	1986. 4.10
7	무형문화재 제8호	전통벌립장	1986. 4.10
8	무형문화재 제9호	방앗돌굴리는소리 (1대보유자 사망~2대보유자 지정)	1986. 4.10 (2008.1.10 재지정)
9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후리는소리	1986. 4.10
10	무형문화재 제11호	고소리술	1995. 4.20
11	무형문화재 제12호	고분양태	1998. 4. 8
12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2001. 8. 16
13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2001. 8. 16
14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	2002. 5. 8
15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2002. 5. 8
16	무형문화재 제17호	진사대소리	2005. 10. 5
17	무형문화재 제18호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2007. 2. 28
18	무형문화재 제19호	성읍리초가장	2008. 4. 18
19	무형문화재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2009. 7. 24
계	19 종목	해녀노래 외 18곡	(1971~2009)

74) 고창석 외 28명,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 광문당, 2009, 473쪽, 표, 재인용.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무형문화재 1호인 해녀노래는 1971년 8월 26일 지정이 되었으나 1대 보유자인 안도인씨 사망으로 2005년 4월 13일 제2대 보유자인 강등자, 김영자씨가 재 지정되어 오늘날 전승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제주해녀의 가치 위상으로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도무형문화재 2호인 영감놀이는 1971년 8월26일 지정이 되어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무형문화재 3호 오메기술 1990년 5월 30일 지정되었고, 제5호인 송당리마을제, 제6호 남읍리 마을제, 제7호 덕수리 불미공예는 1986년 4월 10일 지정이 되었으며 제8호 정동벌립장. 제9호 방앗돌굴리는 소리는 1986년 4월10일 지정되었으나 1대 보유자인 강원호씨 사망으로 2008년 1월10일 제2대 보유자인 김영남씨가 재지정 되었다.

제10호 멸치후리는 소리 1981년 4월 10일 지정되었으나 1대 보유자인 김경성씨 사망으로 현재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이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전승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제11호인 고소리술은 1995년 4월20일 지정되었고 12호인 고분양태는 1998년 4월 8일 지정되었다. 제13호인 제주 큰굿 2001년 8월 16일 지정되었으나 1대보유자인 이중춘씨 사망으로 전수자가 전승의 길을 걷고 있으며 현재 굿 의식의 내재적 가치로 영상 DB 구축과 기록 작업들을 하고 있다. 제14호인 제주도 허벅장 2001년 8월 16일 지정되었으며, 제15호 제주불교의식, 제16호 제주농요 2002년 5월 8일 지정되었으나 1대보유자인 이명숙씨 사망으로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가 제주농요전승을 위한 전승공연 및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으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제17호인 진사대 소리는 2005년 10월 5일 지정되었고, 제18호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2007년 2월28일 지정되었으며, 제19호 성읍 초가장 2008년 4월 18일 지정 되었으며 제20호 제주시창민요가 2009년 7월 24일 김주산씨가 지정되었다.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한 종목들의 전승현황을 알 수 있으며, 무형의 가치로 원형보존과 전승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유·무형문화재외 향토유산들은 선조들이 삶속에 내재적 가치로 정체성이 배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현시대 흐름에 맞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형의 가치로 일상적인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문화정책의 일관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외 전승자들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승실태

무형문화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실현 되어가는 무형의 가치로 창조적 계승을 통해 원형보존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문화적 전승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문화는 전승되는 과정에 끊임없이 재창조되면서 지속과 변화의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⁷⁵⁾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나 개인은 전승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의 확산과 후계전승을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예능을 그 세대에 전달 습득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일반인에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는 ‘교육’과 ‘공연’을 동시에 의무적으로 부여받게 되며⁷⁶⁾ 전승의 주역으로서 원형보존과 계승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75) 임재해,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2007, 45쪽.

76) 양진환, 「중요무형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공회대학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8쪽.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전개된 시기인 문화재법 제정 이후인 1970년대를 기준으로 지정 되었다.

지정 기준은 전통문화 관련 행사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 수상했거나, 문화재로서의 고유성과 희소성 등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반추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시·도지사나 관계 전문가의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라 지정, 보존되며 전승 형태와 성격에 따라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종목별 전승실태를 살펴보면 음악(예능)분야, 놀이의 식분야, 공예 기능분야 로 살펴 볼 수 있으며 표 구성은 무형문화재 공개 공연 및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전승강의를 통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71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위상을 드러낼 만큼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제주사람들의 삶의 정신세계를 반추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가 되고 있다.

공예 기능 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 탕건장과 망건장은 근대화로 작업현장은 사라졌지만 보유자에 의해 무형의 가치인 원형보존 차원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갓일 또한 보유자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는 문화재는 과거 문화재중심의 발굴 및 보존에서 문화재를 전승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건립되어 도민들의 실질적 체험강습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비하지만 제도적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는 종목별 음악(예능)분야 와 놀이의식분야 의 전승실태를 알 수 있다.

<표 9>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실태⁷⁷⁾

구분	지정 년도	지정 번호	종 목	보유자 및 단체
음악 (예능) 분야	2005.4.13	제 1호	해녀노래	강등자. 김영자 (재지정)
	2008.1.10	제 9호	방앗돌굴리는 소리	김영남 (재지정)
	1986.4.10	제 10호	멸치후리는 소리	한성복 (전수조교)
	2002.5.8	제 16호	제주농요	김향옥 (전수조교)
	2005.10.5	제 17호	진사대 소리	진선희
	2007.2.28	제 18호	귀리겉보리농사일 소리	하귀2리 민속보존회
	2009.7.29	제 20호	제주 창민요	김주산
	1989.12.4	제 95호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강문희 (전수조교)
놀이 및 의식 분야	1980. 11.17	제 71호 (중요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김윤수
	2002. 5. 8	제 15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주불교의식	문명구
공예 및 기술 분야	2007. 7.22	제 4호 (중요무형문화재)	갯일(양태)	장순자
	1980. 11.17	제 67호 (중요무형문화재)	탕건장	김공춘
	1987. 1.5	제 66호 (중요무형문화재)	망건장	이수여
	1986. 4.10	제 8호 (제주도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	홍달표

77) 고창석 외 28명 공저,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 광문당, 2009, 268~305쪽, 표로 구성했음.

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예능)분야에서 1971년 지정된 1호 해녀노래는 1대 보유자 안도인 씨 사망으로 2대 보유자 강등자, 김영자로 재 지정되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9호인 방앗돌굴리는 소리 1대 강원호씨 사망으로 2대 보유자 김영남이 재 지정되어 덕수리민속보존회로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맥을 잇고 있으며, 제10호 멸치후리는 소리 1대 보유자 김경성씨 사망으로 전수조교인 한성복외 전수생들이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전승의 맥을 잇고 있다.

제16호 제주농요 1대 보유자 이명숙씨 사망으로 제주농요 전수조교 김향옥외 이수자가 무형문화재 공개공연 및 제주시 전통학교강의,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승강습으로 전승이 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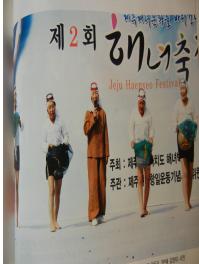


제15호 불교의식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통해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17호 진사대 소리, 18호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또한 근대화로 사설과 가락만의 남아 원형을 위한 무형의 가치로 무형문화재 공개공연을 통해 맥을 이어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는 1대 보유자인 조을선씨 사망으로 전수조교 강문희가 맥을 잇고 있으며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20호 제주창민요는 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김주산에 의해 맥을 잇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제주도 의 문화적 가치위상으로 제주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양태, 67호 탕건장, 66호 망건장, 도무형문화재 8호 정동벌립장은 기능전수만으로 기능보유자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지정무형문화재의 종목별 특성은 알 수 있으며 표 구성 사진자료는 음악(예능)분야와 놀이의식 분야에만 첨부했다.

<표 10>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별 특성⁷⁸⁾

구분	지정년월일	지정번호	종목 및 보유자	내 용
음악 예능 분야	2005. 4. 13	제1호	<p>해녀노래 강등자, 김영자</p> 	<p>‘해녀노래’는 바다에서 물질작업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로 역동적으로 노를 저어‘해녀노젓는소리’라 부르기도 한다. 제주해녀들의 강인한 삶의 여정과 작업의 한계, 기원, 바다의 상황등 역동성과 힘찬 기상이 나타나며, 1970년대 이후 노동 기능인 노젓는 행위가 사라지고 노래만이 전승되고 있으며 오늘날 제주해녀의 가치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p>
	2008. 1. 10	제9호	<p>방앗돌굴리는소리 김영남</p> 	<p>연자매의 옷돌과 알돌을 들뜰, 냇가에서 제작한 후 마을주민들의 동원되어 운반하며 부르던 운반노동요이다. 말 방앗간에 연자매를 설치하고 조, 보리, 잡곡등 껍질을 벗겼다. 방앗돌굴리는 소리는 보통 100여명의 계원들이 동작의 일치로 힘을 모아 ‘어기영차’ 돌을 끌어내리면서 노동을 독려하기위해 불렀다.</p>
	1986. 4. 10	제10호	<p>멀치후리는소리 한성복(전수조교)</p> 	<p>모래밭이 형성된 해촌의 바닷가에 멀치때가 들어오면 멀치후리는 작업을 하면서 부르던 어업요이다. 멀치잡이는 음력3월 말쯤 시작되어 9월까지 치러지며 초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행해진다. 공동체문화로 어장을 공동관리,공동작업등 각 그물집마다 보통 10척이 배가 동원된다, 배의 기능에 따라 닻배, 망선,당선 등 명칭도 다르다.</p>

78) 고창석 외 28명 공저,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 광문당, 2009, 269~305쪽, 글, 재구성.

음악 예능 분야	2002. 5. 8	제16호	<p>제주농요 김향옥(전수조교)</p> 	<p>척박한 자연환경에 삶의 터전을 위해 선조들의 삶의지혜로 만들어진 원시노동요법으로 .한라산에 방목한 마,소떼를 불러모아 바람에 씨가 날리지않고 착상이 잘되어 발아가 되도록 밭을 꼭꼭 밟으면서 부르던소리이다 ‘밭불리는소리’‘검질(검)매는소리’‘마당질소리’.3곡이‘제주농요’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동과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전해지고 있다.</p> <p>공개공연을 통한 전통방식의 재현으로 가장 많은 창자층을 확보한 전승력이 강한 농업 노동요이다.</p>
	2005. 10. 5	제17호	<p>진사대소리 진선희</p> 	<p>농경생활에 발농사 위주의 김멜때 부르는 ‘사대소리’중 길게 늘여서 유장하게 부르는 형식의 노래를 말한다. 애월지역의‘진사대소리’는 동부지역의 ‘쫓른사대소리’(검질매는소리)와 다르며 더운 여름날 조밭이나 콩밭을 멜때 부르던 소리이다.</p>
	2007. 2 .28	제18호	<p>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하귀2리민속보존회)</p> 	<p>귀리겉보리 농사일 소리에는 짐승과 같이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마소모는소리’ 돛걸음불리는소리등, 돼지우리의 낸 걸음을 마당으로 낸 후 보리씨앗을 섞으면서 부른다. 하귀 2리 민속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으며 선소리꾼이 회초리를 들고 소 뒤에 서서 소리를 한다.</p>
	2009. 7. 29	제20호	<p>제주창민요 김주산</p> 	<p>전통적으로 창민요는 전문 소리꾼에 의해 세련되게 불려졌던 가창 유희요 를 말한다.</p> <p>제주 창민요는 주로 관청에 소속되어 종사하던 기녀들에 의해 전승되다 민간으로 알려지면서 전해졌다. 음악적인 면에서 성음 창민요에 비해 가락이 느린편이다.</p>

놀이 의식 분야	1980. 11. 17	제71호 (중요무형 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김윤수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바람의 신, 영등신을 맞이해 음력2월 ‘영등달’이라한다. 영등달이 머무는 15일 동안 영등굿을 하게 되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를 하게된다. 영등굿은 요왕맞이와 어부들의 풍어를 비는 ‘영감놀이’ 등으로 이루어진다.
	2002. 5. 8	제 15호	제주불교의식 문명구 	제주불교의식은 제주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梵唄)와 재 공양의식을 말한다. 범패란 불교 의식중에서 재를 올리기 위해 부처님께 바치는 음악을 말하며 재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의미하는 말로 죽은자를 위한 기원을 비는 불교의식을 말한다.
공예 및 기술 분야	2007. 7. 22	제4호 (중요무형 문화재)	갓일 (양태) 장순자	갓일은 갓을 만드는 작업과정을 총칭하는 말이며, 외관의 기본인 갓은 조선시대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갓은 머리를 덮는 부분 ‘총모자’ 차양부분의 ‘갓양태’로 구분한다.
	1980. 11. 17	제67호 (중요무형 문화재)	탕건장 김공춘	조선 초기 탕건은 망건과 함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감싸고 상투를 가리는 기능과 더불어 사용했다 제주시, 삼양동을 중심으로 말총을 이용해 부업으로 작업을 했으며 탕건제작 과정은 짜는 작업, 삶는 작업, 목염 처리로 나눌 수 있다. 양반 사대부 계층이 사용했다.
	1987. 1. 5	제 66호 (중요무형 문화재)	망건장 이수여	망건은 조선시대부터 사대부가 상투를 튼 머리카락을 단정케 하고자 사용한 일종의 머리띠 로 말총을 이용해 작업을 했으며 제주도 조천읍 일대가 생산지였다.
	1986. 4. 10	도무형문 화재 8호	정동별립장 홍달표	정동별립은 정동(맹맹이덩굴)이식물줄기를 이용해 모자의 재료로 사용한다. 제작과정은 상판짜기, 옆면짜기, 차양짜기 나눌 수 있으며 완성까지는 6일에서 10일 걸린다.

문화재는 지정과 인정만으로 원형을 갖추어 자동적으로 전승·보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화재 특성상 정확한 기록이나 정립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실체가 없이 전승되는 이유에서 인위적인 전승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멸되지 모르기 때문이다⁷⁹⁾.

무형문화재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참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보편성에 비중을 두어 공공의 가치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세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세대전승의 주역들이 체계적인 전승을 할 수 있도록 전승 지원금에 대해 현실적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실성 없는 전승지원금은 전승자로서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수자들의 관심부재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정종목 공연의 규모와 소요 경비 등 특성에 따라 차등화 시켜 공개행사비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며, 전수교육과 공연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체계적 후계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9) 김미경, 「무형문화재 정책 및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 -시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9쪽.

2.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오늘날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수려(秀麗)하여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등재 등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입지적 요인이 되었으며 자연유산과 연계한 올레길은 관광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 내고 있다.

제주도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본토와 떨어진 섬으로 제주사람들의 삶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반추할 수 있는 ‘제주어’로 된 토속민요가 있으며 민요 속에 함축된 사설을 통해 제주문화를 알 수 있다.

제주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이 배어있는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근대화와 노동환경의 변화로 작업현장에서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전승되고 있으며, 무형의 가치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거나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예술콘텐츠로 제주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동요는 노동과 관련된 기능에 의하여 생성되고 전승된다. 하나의 노동요가 변천되거나 소멸되는 원인은 그 노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⁸⁰⁾ 제주도 노동요는 노동의 개념적 행위보다 내재적 가치인 정신문화적 가치가 지대하여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무형의 전승가치가 크다.

그러나 가창자의 고령화와 시대적 변이로 노동요는 원형에서 점차 변질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전통의 맥을 잇는 세대전승과 보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만들어낸 노동요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한라산에 뛰노는 ‘말’들을 밭으로 불려 모아 바람에 씨가 날리지 않도록 밭을 밟으면서 불렀던 ‘밭불리는 소리’를 만들었고 검푸른 바다에 목숨을 담보로 ‘물질’⁸¹⁾ 하러 나갈 때 해녀들의 역동적으로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노랫소리인 ‘이여도사나’를 만들었다.

생활 중에 방아를 찧고 ㄱ래(맷돌)로 곡식을 빻으면서 고달픈 자신들의

80)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박사학위 논문, 2004, 15쪽.

81) 바다에서 전복, 소라를 채취하는 과정, 즉 해녀일을 하기위해 물속에 들어가 작업하는 과정을 말함.

삶의 애환을 달렸으며, 노동과 직결된 사설로 일이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과 관련 없는 가창자의 심정을 노래하기도 하여, 제주도 노동요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종교, 가치관, 도덕적 관념 등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노동요는 선대에서 전승되는 기층문화로 오늘날까지 선조들에 의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맞물려 전승되고 있어 후대에 전승해야 할 무형문화유산이다.

제주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논문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문헌을 고찰해 보면 ‘야오나끼’의 조선이 보고에서 “제주사람들은 강의박눌(剛毅朴訥): 강직, 씩씩하고 낭비 경솔하지 않음)하여 본토 사람들처럼 인순고식(因循姑息): 낡은 관습에 따라 고치지 않는 것⁸²⁾ 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다” 제주사람들은 뿌리박음의 근성을 갖는 과거 고착증으로 기존의 법칙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인간이다.⁸³⁾라고 적었다.

돌 많고 바람 많은 섬에서 살아남는데 급급했던 제주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이 갖는 아름다움이나 보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왔고, 당연히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기에 도둑과 거지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즉자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런 삼무(三無)정신이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도둑(盜無)없고 거지(乞無)없고, 대문(大門無)없는 정신적 가치관인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했던 즈냥 정신이 덕목으로 근검, 절약, 신뢰, 협동 등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민요의 소재 또한 격식 없이 자연과 일상에서 찾아 생활 중에 토속민요가 존재했으며, 사설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노동의 독려를 위한 질서부여의 효과, 노동축진의 효과, 정신분발의 효과로 일의 능률을 올리고 내재적으로 자율적 규범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스스로 찾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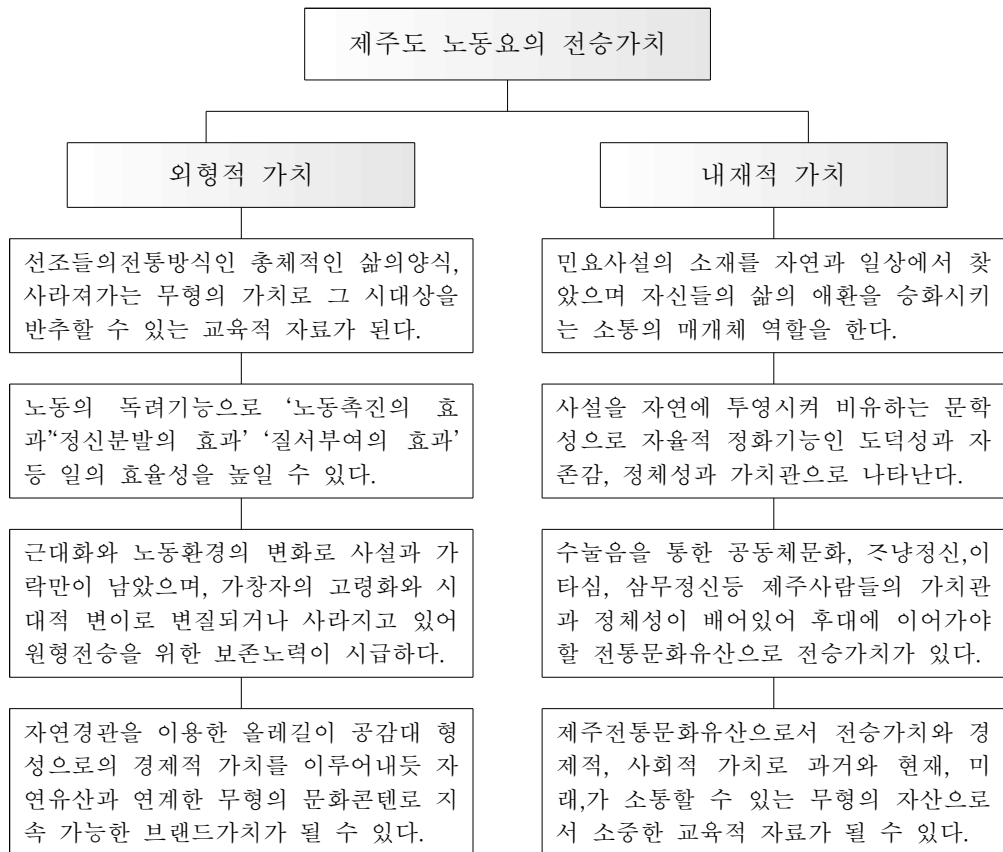
82)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7, 275쪽. ‘야오나끼’, 한일합방전에 제주 섬을 보아 기록을 남겼던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에서 제주사람들은 ‘강의박눌(剛毅朴訥)’, 의지가 강해 쉽게 굽히지 않으며 가식이 없고 헛된말을 안 하고 기개(氣概)가 넘치며 남녀 모두 근면하게 일하는 미풍이 있다. 재인용.

83) _____, 앞의 글, 275쪽.

또한 민요의 사설을 자연에 투영시켜 문학적으로 비유함으로써 자체적 정화기능인 도덕성과 자율적 규범 등 자신들이 나아갈 세계관으로 동기부여, 자존감,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다음 <표 11>을 통해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를 알 수 있다.

<표 11>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관객을 위한 공연장에서 선조들의 전통방식을 재현하는 공연물로 전승되고 있다. 민요를 가창하는 주체 역시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일반인에서 전승공연을 위한 보유자 외 강사 문화향유의 취미를 위한 학습자 중심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제주 ‘올레길’이 세계적 관광 트렌드로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졌겠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 노동요는 인간 삶의 근원적인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전통과 원형만을 고수하기보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승방안들을 연구하고 제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트렌트와 된다면 전승가치와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1) 경제·사회적 측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의 문명은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민족과 계층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산업들을 창출하고 있다. 대중매체들은 예전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보편성에 근거를 두는 공연물로 각색을 하고 전통을 중시한 공연물의 창작된 공연물로 재창출되는 문화산업이 도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을 연계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공동체문화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고 즐기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공연예술을 포함한 전통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도 그 오랜 역사적 전통이나 예술성 면에서 손색이 없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⁸⁴⁾ 제주의 예로 중요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제주문화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큰굿’ 또한 사라져가는 무형의 유산으로 세대 간 전승을 위해 DB 영상작업을 구축하여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인식이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다르게 지형적, 환경적 특성상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여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승과 보존

84) 안선국, 「한국의 전통공연예술정책에 관한연구-중요무형문화재 예능종목 보급 및 선양과 관련된 정책 중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4. 3쪽.

으로 경제적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들이 많다.

제주사람들의 정신적 세계를 의지했던 ‘굿 의식’ 문화와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질곡을 풀어냈던 공동체문화인 제주도 특유의 원시노동요법인 ‘제주농요’ 기계장치를 하지 않는 ‘해녀문화’, 제주전통의 ‘초가’, ‘갈옷’, ‘물허벅’ 외 제주특유의 방언인 ‘제주어’ 그 하위문화인 음식문화 등 의, 식, 주와 관련되어 전승되는 문화유산들이 많다. 그 외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제주의 자연환경은 이미 유네스코지정 세계 7대자연경관 등재로 제주의 브랜드가치 위상으로 세계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연경관에 연계한 ‘올레’⁸⁵⁾길은 관광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로 도, 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입지적 요인이 되었다.

제주를 방문한 국, 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선호도와 공연예술 관람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공연예술 관람이 여행목적이나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내국인보다 일본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⁸⁶⁾

제주의 전통문화와 삶의 총체적인 문화들을 자연유산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전통문화콘텐츠로 상품화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며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제주의 ‘올레’길이 관광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현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대안까지 생각한 트렌드로 창의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자연인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든 올레길은 느낌의 공간, 사색의 공간, 체험 공간으로 ‘놀멍’, ‘걸으멍’, ‘쉬멍’이란 편안한 속에 정해진 틀 없이 자연을 벗 삼아 제주의 바람을 느끼고 돌담을 끼고 돌며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며 제주의 흙과 돌을 밟고 천천히 걷고자 만들어졌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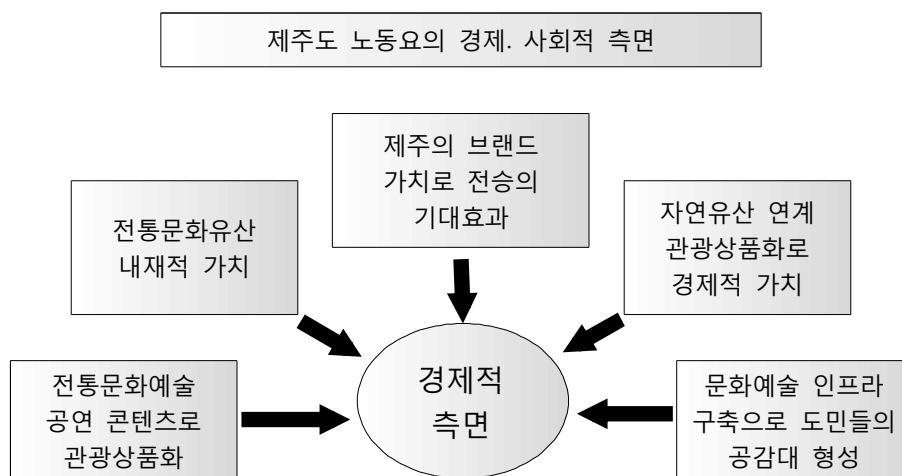
85) ‘올레’란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며, 놀이 및 생활의 장인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으로 들어가지 전까지의 공간을 말한다.

86) 정승훈 외1명 공저,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1.8~9쪽.

87) 이성용, 『제주올레(jeu olle)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9, 2쪽.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노동요의 경제·사회적 측면의 전승가치를 알 수 있다.

<그림 1> 경제·사회적 측면



근대에서 현대로 시대는 변화하나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는 가치문화로서 변용되면서 제주문화의 한 축으로 제주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 낼 것이다.

2) 정신·문화적 측면

문화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변화시켜 삶의 여유로움을 주며 자기 정체성과 자아실현으로 주변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문화적으로 지역사회 화합과 안정 등 사회질서에 기여한다.

21세기는 문화콘텐츠의 대중화로 전통의 공연물의 현 시대흐름에 맞는 공연물로 재창출되어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상의 노동이었던 제주사람들은 삶 자체가 노동이며 노동은 숭고한 자신들의 삶의 일상으로 노동요속에 마음을 담는 소리인 민요를 통해서 삶의 애환을 표출해 냈다.

예로부터 제주도에는 빼어난 민요들의 땅아 민요의 보고(寶庫)라 했으며 다른 지방과 달리 창민요가 드물고 노동요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는 모두 들이나 바다에 나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곳의 사정을 반영해 준다. 한 가지 노동요에 수많은 사설이 따르고 가창자의 심정과 노동현장상황에 따라 사설은 또 다른 각 편을 만들어 냈으며 자신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노동요는 삶 그 자체이다. 또한 어떤 어려움도 까무러치지 않고 이겨내는 굳센 의지가 담겨있어 일 속에 신명풀이라 할 정도로 노동의 독려기능 외에 정신적인 피안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오늘날 전통을 원형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물들은 미래 문화콘텐츠로서 인간의 정신에 부합되는 공연물로 재창출되어 음악으로서의 가치와, 사설의 문학적 가치, 전통의 현대와 공존하는 사회현상의 가치 등 현대인의 정서를 반영하는 공연물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많아 졌으며 정책적으로도 우리문화의 원형을 지키기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⁸⁸⁾으로 원형보존을 위한 DB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원형 사업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전통문화 소재를 원형 그대로 작업화 하여 후대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문화유산을 정책적으로 제도화 하는 정책 사업으로 교육적 활용자료와 시대변용에 따른 무형의 내재적 가치로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유산들은 세계무형유산등재로 브랜드가치가 높아 졌으며 관광 자원화로 정신·문화적 가치 외에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는 각국의 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하며 보존과 전승에 제도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 등 우리민족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을 사랑하는 전통문화유산들을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종목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정체성과 독창

88)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박사논문, 2004, 104쪽.

성, 민족의 얼의 배어있는 종목들로 정신·문화적 측면의 내재적 가치와 외형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세계 각국에 인정을 받고 있으며 후대에 전승해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보존과 전승으로 이어져야 할 무형문화유산이다.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류무형유산등재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12> 인류의 무형유산 등재 현황 89)

지정 연 월 일	인류 무형유산 등재 종목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3년 11월 7일	판소리
2009년 9 월 30일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2010년 11월 16일	가곡, 대목장, 매사냥
2011년 11월 28일	택견, 출타기, 한산모시짜기

자료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11), 김민경기자(2011)KBS NEWS 참조.

전통문화 중 무형의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유산들은 외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정신적·문화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민족문화의 맥을 잇는 전통성과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가치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 한다.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가 그 나라의 위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89) 이지선 「중요무형문화재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화 전략-중요무형문화재촌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46쪽, 표 재인용.

3.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 노동요 전승과정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자갈함량의 높아 농사를 짓기에 물리적 조건은 험악할 수밖에 없었다.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 자체적인 농기구가 필요했고, 휴경(休耕)과 바령⁹⁰⁾으로 밭을 쉬게 하여 지력(地力)을 좋게 하고 밭을 쉬게 하는 동안 밭 안으로 ‘마소’를 몰아넣어 오줌과 분(糞)을 받아내어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다.⁹¹⁾

한라산을 중심으로 평지의 능선으로 된 ‘오름’이 낀 초원은 마을 공동목장으로 ‘마소’를 가꾸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 조건으로 ‘마소’들을 그대로 풀어놓아 방목(放牧)에 의존했다는 특성도 ‘바령’속(俗)을 낳은 배경이 되기도 한다.

제주도에는 밭이 있어야 살았다. 그 밭은 땅에도 있지만 바다에도 있다. 숙전, 출밭, 새밭은 땅에 있고 메역밭, 할망밭, 선생밭은 바닷밭이다.

숙전(熟田)은 농사를 짓는 밭이고, 출밭은 소나 말의 먹이가 되는 풀밭을 말하며, 새밭은 2년에 한번씩 제주의 전통가옥 ‘초가’를 이었던 새(띠)를 키웠던 밭이다. 바닷밭은 해조류와 해산물을 채취했던 밭으로 섬의 해녀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제주도에서 소금밭은 적게나마 암반 위에도 있고, 해변의 모래 위에도 있었다.⁹²⁾

제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작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넘치는 것을 바꾸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지역적 특성인 공동체문화로 나타난다.

일상의 노동이 연속이었던 제주 사람들은 노동이 상황에 맞는 사설에 리듬과 여음으로 노동요를 불렀으며 사설 속에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다.

90) 소나 말의 똥이나 오줌 같은 분비물을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곳에 모아 받는 일. 낮에 돌보면서 풀을 뜯게 했던 소나 말을 밤에 가두어 두었던 밭을 바령밭 또는 바령통 이라 부른다. 특히 소를 넣었던 밭을 섯통 이라고도 한다.

91)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 대영인쇄사, 1996. 201쪽

92) 고재량, 「가을의 제주, 오름 사잇길의 다섯풍경」, 여성주의저널 일다, http://ildaro.com/sub_read.html?uid=5631§ion=sc7, 2011.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전개된 시기인 문화재법 제정 이후 1970년대를 기준으로 지정되었다. 잡역요인 방앗돌굴리는 소리와 어업요인 멸치후리는 소리는 1980년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수상한 경력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해녀노래와 제주농요는 근대화와 노동환경이 변화로 전통방식의 원형보존과 무형의 가치인식으로 고유성과 희소성 등을 평가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 되는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잡역요 등 지정종목의 전승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13>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 노동요⁹³⁾

분 류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문화재 명	소재지
어업노동요	제1호	2005. 4. 13 <재지정>	해녀노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42.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32
	제10호	1986. 4. 10	멸치후리는 소리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1677-8
농업노동요	제16호	2002. 5. 8	‘제주농요’(3곡) 밧불리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제주시일도2동 993-14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제17호	2005. 10. 5	진사대 소리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1589
	제18호	2007 .2. 28	귀리겉보리농사일 소리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93 <하귀2리 민속보존회>
잡역요	제9호	2008.1.10 <재지정>	방앗돌굴리는 소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255

93) 고창석 외 28명 공저,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 광문당, 2009, 268~301쪽, 글, 표로 작성하였음.

‘제주도 무형문화재지정 노동요 전승실태’에서 특성과 전승과정을 다룬바 있어 전승과정 생략함.

농업노동요는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되어 전승되는 밭불리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제17호 진사대 소리, 제18호 귀리겉보리농사일 소리로 나눌 수 있으며 어업노동요는 제1호 해녀노래, 제10호 멸치후리는 소리가 있으며 잡역요로는 제9호 방앗돌굴리는 소리가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노동요는 제주도 대표적 민속축제인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축제 공개공연을 통한 전통방식의 재현으로 무형의 가치와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전승가치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연계행사로 타 종목의 무형문화재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전승프로그램으로 극대화 하고 있다.

1)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본토와 떨어진 제주도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활터전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부족한 식량을 메워야 하는 자급자족의 생활로 제주여인들은 농사일이 끝나면 바다에 나가 잠수일을 한다.

제주도 여인들에 있어 바다는 밭이나 다름없는 삶의 일터이며 운명적인 생활공간이다. 바다는 해조류와 해산물을 채취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나 노동의 힘든 과정을 해야 하는 제주해녀들의 고통과 실상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삶의 투쟁이었다.

해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만 있을 뿐이며 기계장치를 하지 않는 제주도 해녀는 세계해녀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있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해녀노래는 1971년 8월 26일 1대 보유자 안도인 씨가 지정되어 전승과정을 거치다 안도인씨 사망으로 2005년 4월 13일 제2대 보유자인 강등자와 김영자씨가 재 지정되어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공개공연 및 해녀축제 등을 통해 전승의 길을 걷고 있다.

다음 <그림 2>을 통해 전승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림 2> 해녀축제⁹⁴⁾



제2대 보유자인 강등자와 김영자는 해녀의 전승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사라져가는 해녀문화의 정착과 후계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해녀의 가치위상으로 해녀보존을 위해 해녀박물관이 건립되어 관광객들의 해녀의 대한 이해를 돕고 한수풀 해녀학교, 해녀축제로 물질대회 등 실질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녀노래⁹⁵⁾는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노를 저으면 불렀던 노래로 작업은 바닷가에서 해엄쳐 나가서 하는 ‘갯물질⁹⁶⁾’과 제주도 연안에서 배를 타고 먼 바다나 섬으로 가서 하는 ‘뱃물질’ 한반도 연안 곳곳으로 나가서 하는 ‘출가⁹⁷⁾ 물질’로 나눌 수 있으며 출가물질은 돛배를 타고 한 본토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노 젓는 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⁹⁸⁾

94) 고창석 외 28명,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 광문당, 2009, 269쪽.

95) 변성구, 「제주도무형문화재 1호 해녀노래가치와 전승보전방안」, 『민요학회』, 제10회 세미나, 제주민요, 네젓는소리의 전승양상과 의미, 2009, 5쪽.

해녀노래의 명칭은 ‘네젓는소리’, ‘줍녀소리’, ‘줍수질소리’, ‘해녀노젓는 소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96) 해녀들이 해안가에서 해조류나 패류를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말이다.

97) 해녀작업을 위해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일컫는다.

98) 변성구, 「제주도무형문화재 1호 ‘해녀노래가치와 전승보전방안」, 『민요학회』, 제10회 학술세미나, 제주 민요 ‘네젓는소리’의 전승양상과 의미, 2009, 25쪽.

해녀들은 물결이 밀려드는 검푸른 바다에서 ‘이여싸나 이여싸나’ 후렴에 맞추어 ‘노’를 밀고 당기면서 어떤 고난이라고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기백으로 작업이 고통이나 실상을 민요의 사설에 담아 표출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낸다.

민요사설인 ‘요물아래 은과나 금⁹⁹⁾은 천태만태 끌렸건 만은 높은낭¹⁰⁰⁾에 열매로구나 혼착손에 테왁을 메고 혼착손에 빗창심영 혼질두질¹⁰¹⁾ 열두질을 들어간 보난 저성도¹⁰²⁾가 분명하다¹⁰³⁾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처라쳐라 처라쳐’ 역동적으로 노를 젓고 물속에 들어가 전복소리를 채취하기까지 기계 장치 없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 목숨을 담보로 해산물을 채취해야 하는 제주여인들의 고된 실상과 양광진 모습을 노래의 사설에 담아 드러내고 있다. 해녀노래 구성 요소인 기능과 창곡과 사설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여음인 ‘이여도사나와 이여싸, 처라쳐라’ 등 사설이 여음은 일꾼들에게 힘을 주는 조흥 및 조력으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 하면서 전승에 참여하고 있다.¹⁰⁴⁾

해녀노래의 가창기원이 ‘노’ 젓는 일은 1960년대 발동선이 등장하면서 실제적인 현장 전승이 사라지고 기억에 의한 전승으로 남아 있으며 해녀복인 물소중이(물옷) 또한 1970년대 고무 옷이 등장으로 사라졌다.

해녀는 실질적 생계로 1950년대 출현으로 60~ 70년대까지 이어지다 1980년대 이후 의식변화로 젊은 해녀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00년도 해녀들이 고령화로 해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녀물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전승의 맥이 끊어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녀노젓는 소리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

99) ‘은과 금’, 바다 밑에 깔린 전복, 소라등 해산물을 비유함.

100) ‘높은낭’ 높은 나무의 열매의 관계로 비유함.

101) ‘혼질 두질’ 한 걸음 두 걸음으로 한길, 두길.

102) ‘저성도’ 죽음의 문턱을 비유함.

103) 바다 밑에 깔려있는 전복, 소라등 해산물이 많지만 ‘숨’ 호흡이 짧아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상황을 해녀노젓는 소리의 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104) 변성구, 「제주도무형문화재 1호 ‘해녀노래가치와 전승보전방안」, 『민요학회』, 제10회 학술세미나, 제주민요, 네젓는소리 의 전승양상과 의미, 2009, 25쪽.

<표 14> 해녀노젓는 소리의 변천과정 (해녀수)¹⁰⁵⁾

연도	해녀수(명)	전승 과정	의상 및 도구	가창기연 및 현상
1960		15~16세 어린 나이 때부터	해녀복(물옷-소중이)테왁, 물안경, 눈, 망사리, 빗창, 고무옷	‘굿물질’‘뱃물질’, ‘출가물질’로 돛배의 짓걸이 ‘노’로 역동적으로 ‘노’를 저음,
1970	1,4143	‘굿물질’ ¹⁰⁶⁾ 을 배우면서 경제적 수단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해녀일을 하게됨.		
1980	7804	제주해안 뿐만 아니라 본토와 타국으로 출가 물질을 하게 되어 경제적인 수단으로 해녀일을 함.	해녀복, 고무옷 등장으로(물소중이)사라짐.	동력선 등장으로 ‘노’를 짓는 기능이 사라지고, 잠수 기능인 물질 작업만 남음.
1990	6827			
2000	5789	근대화화 와 현대화, 기계화 등 작업환경의 변화와 의식구조 변화로 차츰 해녀수 감소로 나타남.	고무옷, 산소통, 테왁, 물안경, 눈, 망사리, 빗창	해녀의 희소성 가치인식으로 세계무형유산등재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 및 해녀양성제도 마련.
2010	4995			

제주해녀는 기계장치를 하지 않는 특수성과 전통성으로 유네스코지정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될 만큼 희소성과 가치인식으로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인위적 전승보다 자연적 전승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다양한 방안들이 실질적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전승자들이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2)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제주도에는 여흥요(餘興謠)가 많은 한반도부에 비해 노동요(勞動謠)가 대부분으로 총 1400여수의 민요 중 80%가 삶의 현장에서 불리어지는 노동요이다.¹⁰⁷⁾

105) 신동일, 『해녀문화의세계화와 소득증대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1. 27쪽.

106) 해녀들이 해안가에서 해조류나 패류를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말이다.

107)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7, 152쪽.

근대화와 노동환경이 변화로 노동을 하면서 민요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노동과 분리되어 관객을 위한 공연무대에서 가창자에 의해 불리어 지거나 고유성과 희소성 등 무형의 가치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고 있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는 곡목은 밭블리는 소리(밭밟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쫓른 사대소리), 마당질 소리 등 3곡으로 2002년 5월 8일 故이명숙씨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예능보유자 故이명숙씨는 1980년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마을단위 수상 경험과 1993년 제10회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명창’으로서 제주민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민요의 초석을 다지는 일과 제주농요의 원형보존과 후계 전승에 주력하다 2007년 타계했다.

故이명숙씨는 제주도 토속민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제주농요 외 토속민요인 방아짚는 소리, ㄱ래(맷돌)고는 소리, 말에게 먹일 준비는 소리를 제주농요와 묶어 제주도 노동요의 사계절을 나타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씨’ 뿌리고, 검질(김)메고, 수확한 곡물을 수확하는 마당질 소리, 수확한 곡물의 껍질을 벗겨내는 방아짚는 소리, 맷돌에다 곱게 뺨는 ㄱ래(맷돌)ㄴ는 소리 까지 제주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전통방식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제주농요의 전승가치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함을 알렸다. 제주농요는 예능보유자 故이명숙씨 타계로 전수조교 김향옥 외 이수자 김향희 가 故이명숙의 유업을 이어 제주농요보존회(한라예술단)로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 강의’,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제주농요전승강의’,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무형문화재전승강습 및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공개공연’, ‘강릉단오제공연’외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정기공연, 故이명숙명창 추모공연 외 제주농요 전승강의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표 15>를 통해서 ‘도무형문화재 16호 제주농요’의 전승과정을 알 수 있다.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108)

행사명	종목(제16호)	자료 사진	노동요 내용
제주 농요 전승 공연	밧볼리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풍광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라산 자락에서 뛰노는 조랑말 떼이다. · ‘밧볼리는 소리’는 화산회토로 푸석한 뜬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 선조들의 공리해 낸 원시노동요법으로 한라산에 방목한 마소떼를 몰아다 바람에 씨가 날리지 않도록 밧을 밟으면서 부르던 소리이다.
	검질매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화산회토로 잡초가 잘 자라.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6월로 접어들면 검질매는 일로 일손이 바빠진다. · 공동체문화인 수눌음을 통해 한사람이 열흘동안 매야할 밧을 열사람이 메고 다른 밧으로 옮긴다. 제주여인들이 수건을 쓰고 밧매는 소리인 ‘검질매는소리’로 노동의 수고로움을 이겨나가곤 했다.
제주도 무형 문화재 공연	마당질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밧농사가 주류를 이루는 제주도에서는 조, 보리, 산디(밭벼)콩 등을 주식으로 삼았다. · ‘마당질 소리’는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주로 마당이나 밧의 넓은 공간에서 도리깨질로 탈곡하면서 불렀던 소리이다. · 일의 진행과 노동을 독려하는 사설로 마당질소리의 사설에서 그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방아짙는 소리 ㄴ래고는 소리 (토속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아짙는 소리’와 ‘ㄴ래(맷돌)고는’ 소리의 사설에는 제주여인들의 기구한 운명과 서러움, 삶에 고단함이 배어있다. · ‘오름에 돌광 지세어멍은 둥글당도 살을 메난다’¹⁰⁹⁾ 노동요의 사설을 자연에 비유하는 문학성으로 자율적 도덕관념을 세우고 자신들의 나아갈 세계관을 찾았다.

108) 본인 소장 자료, 제44회 탐라문화제 공개공연 사진, 2005.

109) ‘지세어멍’ 곧 정절이 곧고 집안일을 착실히 하는 아낙과 ‘오름의 돌’ 한라산의 기생화산에 놓여진 돌을 적절히 비유하는 사설로,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갈 방도가 생긴다는 뜻이다.

제주농요 대표곡인 ‘밧벌리는 소리’의 사설을 보면 ‘요몰더라 저몰더라 고비창창 돌돌돌 돌아지명 구석구석마다 씨난디어시 멘작허게 블라도라 허는구나¹¹⁰⁾ 재석할머님아 요조랑 불리건 남댕이랑 두자두치 고고리랑 낱 건 덩드렁 마께만씩 나게협서¹¹¹⁾ 위러러러 월~ 월월월월 와~아하하 와하령’, ‘말’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들을 타이르며 일을 독려하는 말 테우리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제주도 노동요는 제주사람들의 근원적인 삶의 원천으로 문화적 삶속에서 생동하며 생성되는 것으로 살아있는 삶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과 분리될 수 없었던 제주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의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을¹¹²⁾ 정도로 여가가 없이 노동을 해야 했으므로 여흥요(餘興謠)를 즐길 시간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삶의 애환을 소리(민요)로 풀어내어 마음을 치유하고 효율적인 노동의 독려수단으로 흥을 돋우어 자유를 얻고 살아갈 희망을 만들었다.

노동요는 옛 선조들의 삶을 조명해볼 수 있는 민속적 기능으로서의 민중의 예술로서 민요 위상을 드러내는 역사적 산물이며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시대적 변이로 노동과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전승되는 노동요는 자연적 전승보다 무형의 가치로 인위적 전승에 의해 선조들의 전통방식을 재현하며 전승되고 있다.

‘제주농요보존회’ 전승의 주역인 김향옥, 김향희는 제주시청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 강의시스템을 통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노동요 중 가장 많은 창자 층이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전승이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제주 전통문화공연으로 토속민요의 우수성과 제주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제주농요 전승강습이 1회성이 아닌 실질적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무형문화재 전승강습, 제주시전통학교 강의, 제주농요전승교육과 전승강의 및 농사

110) 요‘말’ 들어 저‘말’들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짝이 돌아난데 없이 고르게 잘 밟아 달라 하는 구나.

111) ‘재석할머님’ 농사 ‘신’ 조밭에 ‘줍씨’를 뿌렸으니 조 밭이랑 밟은 거든 곡식이랑 튼실하게 열매를 맺 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부른다.

112)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7, 154쪽.

체험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주농요보존회(한라예술단)원으로 공연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 제주도무형문화재 중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농요는 제주 옛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배어있는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이다. 현 세대에서 후세대로 갈수록 선조들에 의한 전통방식의 재현은 더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가치만은 변용되면서 또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승의 주역인 전승자들이 긍지를 갖고 전승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의 실질적 체험강습, 시연 등 전승 과정을 알 수 있다.¹¹³⁾

<그림 3> 제주도무형문화재 16호 제주농요 전승강습 및 시연



밭빌리는소리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마당질 소리(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뒤뜰)



故이명숙명창제3주기추모공연(문예회관대극장)



행상재현<2010.5 23>.본인 소장 자료

113) 제주시 전통학교 ‘농사 재현’으로 제주농요의 이해를 돕고, ‘행상 재현’으로 전통문화의 소중함 알림.

IV. 제주도 노동요 전승방안

1. 제주도 노동요 지역특성화

돌 많은 화산섬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이 능선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어디서든 돌아서면 바다가 보이고 돌담이 받든 황금빛 곡식들로 영글어 간다.

제주도의 밭은 농사를 짓기 위해 돌을 골라내어야 될 만큼 척박했으며 골라낸 돌을 밭과 밭 사이 경계선의 되기도 하고 밭 안에 쌓인 돌담인 머들¹¹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은 농사를 짓기 위해 스스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지역적 특성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제주도 특유의 원시 노동요법인 한라산에 방목한 마소 떼를 불러 모아 밭을 밟게 하는 농사법을 만들어냈다. 밭농사 위주였던 제주도 노동요는 타 지역과 달리 장소와 일의 특성에 따라 사설과 가락이 다르게 불리어지며 노동과 직결된 사설로 선창의 선소리에 여러 사람의 후 소리를 받아 흥을 돋우어 효율적인 노동의 진행과 일의 순서 등을 알려주는 유절형식으로 되어 있다.

민요의 생성 변천과정은 모든 연행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창작하면서 전승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갖는다.

본토와 떨어진 지리적 특성상 제주사람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노동요는 제주사람들 만의 특성이 있다. 노동요는 노동과 관련된 기능에 의하여 생성되고 전승되며 하나의 노동요가 변천되거나 소멸되는 요인은 그 노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¹¹⁵⁾

제주도 노동요가 제주도의 음악적 토양에서 생성 발전 된 것이 분명한 만큼 제주도 노동요에는 한 본토에 없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것들이 많다.

김매는 소리, 해너소리, 밭밟는 소리 등은 타 지역에는 전무한 노동요들

114) 돌담 밭안의 무더기로 쌓여진 돌담.

115)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박사논문, 2004. 15쪽.

이며 관망요 타작 소리등도 타 지역에는 드물다. 제주도민들은 모든 노동 행위와 함께 비록 그것이 리듬적 快感 등의 音樂的 刺戟이 별로 없는 作業이라 할지라도 노래를 불렀다고 할 수 있으리만치 어떠한 勞動行爲에나 거의 노래가 수반되었다.¹¹⁶⁾

또한 같은 노래지만 가창자의 심정에 따라 사설이 다르게 불리기도 하여 하나의 민요가 또 다른 각 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농업현장에서의 노동요는 이미 30 ~ 40년 전에 자연적인 연행현장은 소멸되었고 지금은 80세 이상이 연령층에서 만나는 마지막 가창자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거의 흔적만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¹¹⁷⁾

제주도 역시 농업환경의 변화와 도시개발로 제주시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경작지들은 거의 없어지고 선대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콩, 보리, 조 등 밭농사 작물에서 고소득을 위한 하우스 농작물로 대체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본고의 어릴 적 선대들이 농사짓던 밭에서의 한가롭고 풍요로운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제주시를 벗어나 읍, 면 지역으로 가야지만 농사를 짓는 밭들이 드문드문 눈에 띈다. 제주도 노동요는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아놓은 제주사람들만의 특성이 있는 우주와 같은 존재이다.

일상을 노동과 함께 했던 제주사람들은 삶의 애환과 정체성, 가치관, 도덕관념, 역사와 문화, 사회질서 등 모든 것들을 노동요속에 담아내고 있으며 공동작업, 공동분배, 공동체 품앗이인 ‘노동계’ 조직을 만들어 지역단위의 결속력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문화와 조남 정신으로 제주를 이루어냈다.

제주도 여성들의 노동성향이 질적인 면에서 남성과 거의 대등하다는 점¹¹⁸⁾은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음을 예시하며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116) 조영배, 「濟州道 勞動謠 의 리듬적 特性과 勞動行爲와의 關係」, 『濟州教育大學敎論文集』第16輯, 1986, 121쪽.

117)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5쪽.

118) 조영배, 「濟州道 勞動謠 의 리듬적 特性과 勞動行爲와의 關係」, 『濟州教育大學敎 論文集』, 第16輯 1986, 126쪽.

애환을 풀어내는 소통의 창구로 수많은 사설들을 쏟아냈다.

일상 속에 존재했던 제주여인들이 맏돌, 방아 노래는 한편의 노래가 다른 각 편을 만들어 육지 부 여성들인 경우 그 ‘한’이 놀이 속에서 신명풀이라 한다면 제주 여성들은 일속에서나 신명풀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⁹⁾

노동은 인간과 떼어 수 없는 숭고한 사람 삶의 모습이다. 노동을 떠난 인간의 삶이란 있을 수 없으며 노동요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어 대변하는 문화적 요소로써 사설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나타난다.

1) 전통문화 공연예술 상품콘텐츠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문화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미스미디어의 매체를 통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류의 보편화된 대중문화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문화란 시대를 반영하여 구성원에 의해 습득, 전승되어 오는 생활양식으로 독특한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공연예술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관광 상품화로 재창출 되어 문화콘텐츠인 경제적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공연예술이란 무대에서 춤,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관객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연기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상호 교감한다는 점이 다른 콘텐츠와 차이가 난다.¹²⁰⁾

제주지역은 지리적, 자연 환경적 특성상 독특한 전통문화유산들이 많으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해녀문화와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오름의 능선을 따라 펼쳐진 경작지, 원시적 농경문화로 물을 짓고 나르던 물 허벅이 때로는 신명을 풀어내는 소리의 장단을 치던 악기로, 생활도구를 만들어 쓰던 불미공예 등 제주전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들이 많다.

그 외 천혜의 자연환경과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검은오름 등 각

119) 좌혜경, 「민요를 통해본 제주민들의 세계인식」, 『白鹿語文』, 第13輯, 1997. 35쪽.

120) 정승훈 외 1명 공저,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관광 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1, 6쪽.

마을마다 저마다의 색깔의 다양한 유·무형유산들이 있으며,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이 배어있는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 또한 전통방식에 의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사라져가는 무형의 내재적 가치로 소중한 문화자원이 되고 있다.

제주올레길이 자연유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 내고 있듯이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이 배어있는 노동요 또한 선조들이 전통방식의 재현으로 관광 상품으로 트렌드화 한다면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공연예술은 이제 전문예술인등 특정한 계층을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공연주체로서 당당히 무대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나타내고 있어 또 다른 수효계층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역과 연계한 상품가치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제주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장 및 상설공연으로 다양한 관객층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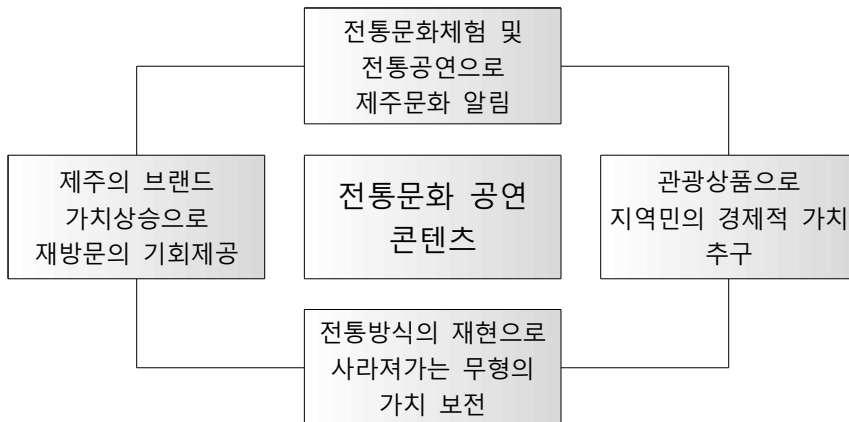
제주도 축제 중 대표적 축재인 탐라문화제는 도민들이 공연 주체로서 참여하는 제주도민 축제로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탐라대전 제51회 탐라문화제의 내용별 구성을 보면 도민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공식축재인 ‘기원축제’와 마을단위 민속축제로 신명과 감동을 주는 ‘민속 문화예술축전’ 제주의 문화유산의 전통을 살리는 원색의 주제 축재인 ‘전통문화유산축전’ 제주예술인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예술문화축전¹²¹⁾ 등으로 예전의 탐라문화제 무형문화재축제와 전문예술단체의 공연과 재현에서 벗어나 마을단위 민속보존회로 지역주민들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도민축제로 공연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다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제주도 노동요의 전통문화콘텐츠로서의 파급 효과를 알 수 있다.

121) 제주도, 『2012, 탐라대전』, 51회 탐라문화제, 제주: 제주도, 24쪽.

<그림 4> 제주도 토속민요 노동요의 전통문화공연 콘텐츠



제주지역 공연예술의 관광 상품화는 국내, 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 특성이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가치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며 브랜드가치로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 외 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옛 선조들의 삶의 정체성이 배어있는 토속민요는 오늘날까지 제주인들의 정체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전통을 아우르는 공연물인 상품가치로 트렌드 화하여 관광을 경유 한 전승의 기대효과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시대 흐름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2) 전승공연 시연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확대

우리나라의 전통공연예술을 포함한 전통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도 그 오랜 역사적 전통이나 예술성 면에서 손색이 없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향유자 중심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야 하며, 관객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상설공연 및 체험학습장 등이 구비되어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

제주도에는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시설과 공연장들이 많지만, 옛 선조들의 삶의 재현방식인 노동요외 탕건, 망건등 제주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체험 학습장은 부족한 상태이다.

지역기반시설로는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전승교육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갯전수교육관 외 제주농요보존회인 제주농요전수교육관이 있어 자체적으로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승의 주역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시청 제주시전통학교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무형문화재의 실질적 체험학습장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제주농요 전승강습 및 시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의 전승교육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무형문화재 체험강습’¹²²⁾

제주시 평생학습센터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학생 대상-제주농요 전승강의)



(일반인 대상-제주농요 전승 체험강습)

위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원 사업인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용강습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122) 본인 소장 자료, 2011.

인들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실질적 체험강습으로 전승과 보존 및 전통문화 저변확대를 지원하는 사회강습 프로그램이다.

제주농요보존회는 2008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주농요체험학습장의 농사체험으로 자연적 전승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제주농요보존회인 제주농요전수교육관에서 ‘제주농요전승강의’와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강의’외 제주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물허벅춤, 해녀노젓는 소리, 전승강의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무대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승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농요 전승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제16호 제주농요 전승강의



제주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무형문화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의 체험강습 및 시연으로 자연스럽게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습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제주문화의 한 축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아놓은 ‘제주민요’와 ‘설화’, ‘무속신화’,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한라산’, 제주문화원형이며 제주인의 자산인 ‘제주어’, ‘해녀’,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등 문화적 요소들을¹²³⁾하나의 콘텐츠로 상품화해 지역민이 전승과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지역기반시설 및 교육기관과 연계프로그램 강화

제주도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으로 자연유산과 연계한 올레길은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중심이 되었고, 올레길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게 되면서 제주도는 국, 내외 국제회의 장소로 부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지자체의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관광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제고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이 자생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질의 가치인식과 주 5일제 근무로 문화예술은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문화가 되었다.

지역기반시설인 동사무소,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강할 수 있는 강좌들이 개설되어 문화향유의 기회가 많아졌으며, 보고 즐기는 공공예술에서 벗어나 공연의 주체가 되는 주역으로 문화는 특정계층이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마을단위 공동체문화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추어 공연물이 이어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관광 상품들의 자생력으로 제주전통을 알리는 공연들이 적게나마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축제중 제주도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외에도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학교연계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지역기반시설에 연계한 일반인들까지 모두 공연주체가 되어 도민축제에 참여한다.

축제는 지자체의 도움으로 지역기반시설에서 마을단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주인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살리는 공연물로 선조들의 했던 전통방식의 재현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예술, 특히 무형의 가치로 전승 보존해야 될 무형문화유산들은 제주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배어있는 사라져가는 제주 전통문화유산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전통방식은 사라지고 시대적 변이에 따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23)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예총』, 제주: 제주사람들, 2009, 51쪽.

후세대에 걸쳐 전승을 위한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제시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품으로 품격화해 지속적으로 전승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 체험강습 및 시연이 가능한 체험학습장이 확충되어 인위적 전승에 앞서 자연적인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지자체 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16> 문화기반시설 현황 124)

구 분	내 역		관수	비 고
총 계			329	
공공도서관	소 계		25	
	지	자 체	15	제주시 7, 서귀포시 8
	교	육 청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사	립	1	서귀포시 1
	특	수	3	점자 2, 장애인도서관 1
박물관 · 미술관	소 계		62	
	국립박물관		1	제주시 1
	등록 박물관	박물관	20	제주시 11, 서귀포시 9
		미술관	15	제주시 8, 서귀포시 7
		전시관	18	제주시 5, 서귀포시 13
		식물원	8	제주시 3, 서귀포시 5
기타 문화시설	소 계		242	
	공	연 시 설	27	공연장 20, 영화관 7
	문	예 회 관	1	제주시 1
	문	화 의 집	21	제주시 10, 서귀포시 11
	문	화 원	3	도지회 1, 문화원 2
	문	화 학 교	14	제주시 8, 서귀포시 6
	문	화 고	176	제주시 107, 서귀포시 69

124) 제주도청 홈페이지, 「열린 행정 통계정보 문화관광스포츠분야」, 2012년 주요행정총람표, 재인용.

문화예술 특히 무형의 가치로 전승 보존해야 될 무형문화유산들은 제주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배어있는 사라져가는 제주전통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제주에서 2008년 4월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년버벌 퍼포먼스의 ‘난타’가 상설공연장에서 공연¹²⁵⁾된 이후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는 희소성의 가치로 제주여성이 상징인 ‘해녀’ 문화가 있다.

제주해녀는 세계적으로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 작업이 특수성과 문명사적 가치로 인해 독특한 생업과 문화를 인정받고 있으나 시대적 변이로 현재 물질작업을 하는 해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제주문화와 인류공통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증대를 위한 전승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제주해녀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여성의 생업에 의한 노동으로 기계장치 없이 물속에서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고 작업하는 특수성과 농사와 어업 등 맥락을 같이하여 제주 여성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어¹²⁶⁾ 전승의 가치가 크다. 제주해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해 해녀축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추진되어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해녀축제 가 해녀박물관 및 구좌읍 등 마을단위 지역축제로 각광을 받으면서 제주도 단위 축제로 승격이 되었고 올해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해녀축제가 개최됨으로서 해녀공연과 해녀물질대회, 해녀복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공연문화예술은 시대적 변화에 변용되는 수요창출에 따르는 공연문화 시스템으로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사회적 현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통적인 원형보존도 필요하지만 전승을 위한 도제식 교육에 앞서 보편적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지역기반시설 확충은 필수이며, 다양한 전통방식들이 보편화된 공연물로 재창출되어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25) 정승훈 외 1명 공저, 『제주공연예술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1, 35쪽.

126) 신동일,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증대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1. i 쪽.

1) 탐라문화제 무형문화제 공개공연 외 타 도시 교류공연

제주도는 1만 8000여 신(神)들의 고향이며 신화의 섬¹²⁷⁾이라 일컫는다.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을 영산(靈山)으로 불릴 만큼 자연을 경외시하고 신성시했으며 섬 특유의 지형적 조건에서 무속신화가 온전히 보존되어 왔다.

독특한 민담과 설문대할망의 오름의 전설, 삼다와 삼무정신, 자립정신의 생활덕목으로 근검, 절약, 절제 등 수눌음을 통한 공동체문화로 제주를 이루어 왔다.

탐라문화제는 1962년 먹을거리조차 귀하던 시절에 순수예술제인 ‘제주예술제’로 탄생됐다. 1년 열두 달 중 으뜸으로 치는 10월 상달에 제주예총(제주도예술인 총연합회)이 일주일간 한마당 잔치를 깔아온 제주도의 가장 오래된 전통문화축제로¹²⁸⁾온 도민들의 관심 속에 50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선조들이 삶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제주도민의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그 명칭도 1965년 한라문화제, 2002년 탐라문화제로 바뀌어 오는 동안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축제로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 가치를 대. 내외에 과시하고 제주문화의 정체성과 차별성으로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다. 탐라문화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제주도민들이 정체성과 대중성, 현재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시대흐름에 변용되면서 오늘날까지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탐라문화제는 제주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대표적 축제로 옛 탐라국의 전통을 되살리는 탐라 입춘굿놀이와 역사와 민속을 바탕으로 한 제주굿등이 재현되며 현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제주문화의 브랜드가치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제50회 탐라문화제는 반세기 쌓아올린 금자탑을 기념해 지난 5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제주문화를 창조하는 ‘천년의 탐라문화’, ‘세계 문화유산으로’ 제주시 해변공연장 일대를 중심으로 모두 6개 축전,

127)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예총』, 제주: 제주사람들, 2009, 51쪽.

128) _____, 앞의 글, 48쪽.

30여개 축제가 진행되었으며 세부프로그램만도 100여개에 이른다.

기원축전과 민속예술축전, 전통생활문화축전으로 제주민속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도민축제가 되어 관광객이 함께 보고 호흡하며 감동을 나누는 관광문화축전이며, 120만 내, 외 도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제주문화의 풍요제라 할 수 있다.¹²⁹⁾

전통을 계승하며 연면한 세월을 거쳐 제주인들의 혈맥을 타고 전승해 온 ‘민속예술축전’은 탐라문화재의 주제 축제로서 제주무형문화재축제, 학생민속예술축제와 농업문화축제, 서귀포민속예술축제로, 탐라문화재는 지난 반세기 제주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의 가치위상을 높였다.

또한 타 지역과 교류문화축제로 제주문화의 정체성과 차별성으로, 타 지역에서 제주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강릉단오제와 교류축제 일환으로 2010. 6. 18 제주농요보존회인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가 강릉단오제 남대천 단오장에서 제주농요공개공연을 했으며 ‘고성농요’가 제주도 탐라문화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도 했다.

탐라문화재는 제주 탐라국의 신화에서 시작해 가장 원초적인 전통의 방식으로 재현함은 물론 타지방의 전통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역사와 사람 삶의 모습 전체를 담아내는 제주문화의 원형으로 제주문화를 대표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다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축제와 강릉단오제, 단오장에서 공연한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의 전통 방식의 재현으로 제주농요를 제주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129) 김봉현, 「탐라문화재,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삶과문화』, 2011, 겨울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80쪽.

<그림 7> 제주농요16호 탐라문화제 무형문화제공연, 강릉단오제공연



탐동해변공연장 특설무대



‘제주농요공연’(강릉남대천단오장)¹³⁰⁾

제주도무형문화제 축제는 제주인들의 혈맥을 타고 전승되어온 ‘민속에 술축전’인 탐라문화제의 주제 축제로서 관광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공연을 통한 전통의 재현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로 51회로 맞는 탐라문화제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존총회와 맞물려 탐라대전 연계행사인 신화역사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협력프로그램 등 제주도 일환에서 연계행사로 진행되었다.

문화제가 성공하려면 축제의 주역만이 아니라 관광객과 도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 간 문화교류협력 외 지자체 기반조성, 낭비 없는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원형보존을 위한 내실 있는 공연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조랑말 경주’가 ‘제주마 축제’로 성장했으며 ‘성읍민속마을이 정의골 한마당 축제’와 ‘덕수리 전통 민속재현’ 행사는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했다. 도내 수협들이 주관했던 ‘바다축제’는 ‘해녀문화 축제’로, ‘언어 축제’는 ‘제주어 축제’로 성장함은 물론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제정¹³¹⁾ 등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민속을 포함한 전통공연은 선조들의 했던 방식 그대로 재현하는 살아 있는 삶의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한 공간에서 숨 쉬

130) 본인 소장 자료, 2010 강릉단오제 단오장, 제주농요공연, 2010, 6, 18.

131) 김봉현, 「탐라문화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삶과문화』, 2011 겨울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83쪽.

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성이 짙은 공연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전통방식의 재현으로 사라져가는 선조들의 삶의 방식의 원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통문화콘텐츠로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전승의 주역인 전승자들의 뜻 있는 노력만이 제주 전통문화를 경쟁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수한 전통예술콘텐츠를 궁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궁중에서 연희되었던 품격 있는 궁중예술이 원형재편을 통해 전통예술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이 3대 궁과 종묘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문화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³²⁾.

제주전통문화인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축제 또한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전승의 주역들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전수교육관 체험강습 및 교사직무 연수로 전승기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는 오랜 역사 속에 우리민족의 정서와 삶이 고스란히 깃들여 있는 전통문화유산으로 실체가 있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어오는 왜래 문명은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부재로 무형의 가치로 전승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들의 사라질 위기에 있어 문화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재전승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체험강습 및 시연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는 등 무형문화재 저변확대에 대한 가치인식을

132) 정승훈 외 1명 공저,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관광 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 2011, 24쪽.

새롭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종목 들은 전승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실질적 체험학습장이 활성화 되어 일반인들이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체험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과 전통문화의 중요성, 우리민족의 정체성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승자들은 긍지를 갖고 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쉽게 배울 수 있는 소고 만들기 외 강습 프로그램에 의한 연계학습은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기대 전승으로 이어지고, 문화유산 답사 외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문화유산 직무연수 외 문화재지킴이 지도교사 직무연수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으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연계 학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화하는 교육적 효과로 이어져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는 이제 더 이상 특권층만의 누리는 소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유산으로 사회 속에 공존하며 우리 모두가 소중한 무형의 가치를 인식하여 후대에 이어가야할 문화자원이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제주시 동쪽 사라봉 공원에 위치하여 관광객들의 많이 찾는 곳에 있다. 양쪽으로 지어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중앙 동은 중요무형문화재7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전용 전수회관으로 쓰이며 바로 앞 쪽 동에는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제주농요 외 중요무형문화재 탕건 등이 한시적으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강습을 위해 종목별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농요는 2006년 故이명숙선생님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청 ‘제주시 전통학교’ 강의개설로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사용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청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체험강습을 통해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제주농요 강의를 듣는 전수생들에게는 익숙한 제주농요 체험학습장이 되고 있다.

다음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농요 전승강의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제주농요 전승교육 프로그램 (ppt 자료, 전승강의 영상물)¹³³⁾

**제주농요(삶의 현장에서)
관객을 위한 공연장으로 시공간 초월**




- 시간과 공간(장소)이 변화 하고 있다
 - 과거 : 노동의 장소인 삶의 현장에서 노동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 현재 : 공연장이나 전수관 등, 취미와 공연을 위한 학습자 중심이 된다
- 노래 부르는 주체(대상)가 바뀌고 있다
 - 과거 : 농사를 짓던 농민 등 일반인에서
 - 현재 : 명절이나 보양제 외 강의 주제인 강사와 시민으로 대상이 바뀌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밭벌리는 소리(제주농요 16호)

검질매는소리(제주농요16호)


- 제주지역은 알은 화산 토로 잡초가 잘 자라 수 늘음인 품앗이로 수고로움을 이겨내곤 했다.
- 삼복더위인 음력6월로 접어들면 검질매는 일로 일손이 바빠진다.
“검질 짓고 골너른 밭디소리
로나 우렁가게” 모다듬배
모다듬배 갯언어른들모다듬배
- 밭매기는 주로 여자들이 했
다. 밭매는 소리도 농민들이
부르는 소리였다. 밭매는
소리는 주로 여자들이
부르는 소리였다.



검질매는 소리(제주농요 16호)

행상재현(꽃염불소리)


- 제주사람들은 농일을 하면서
품앗이로 수고를 땀만 아니라
초상집에서 밥을 새로 상여를
운반할 때 “상여소리”와
“꽃염불소리”를 부르는 공동
체 삶을 살아왔다.
- 꽃 염불소리
후렴 (아해 ~어어이 어허이~ 어
허야월월월 거리고 염불이라)
* 어서가자 어서가자 극락세계로
어서들어가자/(후렴)
* 한번 돌아가면 웃오는 세상 허
무 하구나 허무 하다 염불이여/
* 황토로 구들을 돌아 승곡의
건물으로 나는 들어 간다/
* 산천초목아 말들어보자 임기리
위 죽은무덤이 몇몇이디나/
* 고사리단풍 좋은달로 태억단
풍 좋은달로 극락세계로 왕생
하옵소서 /



해이명숙명창(제3주기 추모공연)

테우(뗏목배)재현-해녀노젓는소리

- 제주토속민요는 삶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랫말
(사설)속에 제주 여인들의
강인함과 고단함, 생활고등
을 느낄 수 있다
- 해녀 노젓는소리
(주법)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
나 이어도사
* 요 앞정당 내 어둠자리 진도 바닷 큰물로
가게/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 요물아래 은과 금은 천대 만대 팔렸건가
는 높은남애벌 배로우나/
* 앞의함은 요왕님이 위에 함은 선왕님이
알발포함 허물치고 뗏발포함 고다치령구
쟁기생복 좋은달로 드러가게 허여주시/
* 큰진두질 머죽질을 물이잔보단 저승도
가 분명하다/
* 물로야 뗏배 물아진 삶에 걸심 굴엄 불
질엄한 한문 두문 끄면는 금진 서왕님
술값에 다들어간다



전통 테우재현(해녀노젓는소리)

무형문화재는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과 얼이 배어있는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매듭장이 노리개가 새로운 문화에 핸드폰 고리로 사용 되는 것 처럼 시대흐름에 맞는 가치창출이 문화재를 전승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형의 가치인 문화유산 및 문화재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해야할 문화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33) 본인 소장 자료.

3.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방안 사례

제주도의 농사는 강수량은 많으나 지표수가 모자라 논농사는 거의 없으며 밭농사에 의한 잡곡이 주산물이다. 토질은 화산회토로 메마르고 가볍기 때문에 밭농사에 있어서 씨를 파종하고 난 후 밭을 밟아주는 것은 농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밭볼리는 일은 여름 농사 파종 끝에 여러 마리의 마소 떼를 앞세워 바람에 씨가 날리지 않고 착상이 잘되어 밟아가 되도록 말 테우리¹³⁴⁾가 마소를 재촉하며 밭을 밟아주는 것을 말한다.

말떼를 잘 부리는 노련한 테우리일수록 좁은 밭 안에서 뱅뱅 돌며 질서정연하게 씨앗을 잘 밟게 한다.

밭볼리는 소리는 제주도 특유의 조 농사법에 따라 이루어진 제주도 특성에 따른 노동요로 사람과 마소가 함께 참여하여 노동현장에서 불린다는 점에서 다른 노동요와 달리 사설구성 양상과 정서 표현이 특이할 수 있다.

제주도의 생업은 남성의 노동력만으로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웠기에 여자들도 생업에 동참해야만 근근이 살아갈 수 있었다¹³⁵⁾.

아침 일찍부터 밭을 매다가 물때를 맞춰서 해녀작업을 나가 소라 전복을 채취하고 밤에는 잡곡을 빻기 위해 맷돌질과 방아를 찧는 고된 일상으로 제주여인들은 쉴 새가 없었으니 맷돌, 방아노래에 제주여인들의 심정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제주도에는 맷돌이 없는 집이 거의 없다. 고된 일상에 맷돌을 돌리다보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신세타령이 저절로 나온다.

방아 찧기는 빠르게 찧는 동작에 따라 소리를 해야 하므로 심정을 드러낼 여유가 없지만 맷돌질은 노래와 동작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리듬으로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노동요에는 농업노동요 외 어업노동요, 제주도의 주된 산업인 농산, 수산, 축산, 임산과 관련한 노동요로 공산노동요중 제분정미요, 관망제조요 야장요, 용기제조요 등 다양한 노동요가 전승되고

134) ‘테우리’는 ‘목자’ 또는 ‘목동’의 제주어이다. 테우리는 마소를 관리하며 농사일인 ‘바령파’('소', '말'의 분비물로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를 만드는 일도 하였다.

135)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연구』, 민속원, 2007. 106쪽.

있으나 농업노동요와 어업노동요처럼 전통방식의 재현으로 기능과 노래(謠)가 전승되는 노동요가 있는가 하면 탕건, 양태, 정동별립장처럼 기능만 전승되는 것이 있다. 전승과정을 보면 자연적 전승은 거의 없으며 인위적 전승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농업 노동요인 밭볼리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는 전승되고 있으나 따비질소리, 흙덩이 부수는 소리는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업노동요인 멸치후리기와 해녀노래는 전승이 되는 편이나 자리돔그물질 소리와 떼배젓는 소리는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분요에서 방아질소리와 맷돌질소리는 전승이 되고 있으나 연자방아질 소리는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 <표 17> 를 통해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현황을 알 수 있다.

<표 17> 제주도 노동요 전승 현황¹³⁶⁾

구 분			민 요 명	전승형태
음 악 외 적 기 능 요	노동요	농업요	밧볼리는소리, 밧밧는소리, 마당질소리	○
			검질매는소리,방아짚는소리, ㄱ래고는소리	
			따비질소리, 흙덩이 바수는 소리	×
		어업요	해녀노젓는소리, 멸치후리는소리	○
			자리돔 그물질소리, 떼배 젓는소리	×
		제분요	방아짚는소리, ㄱ래(맷돌)고는소리	○
			연자 방아질소리	×
		관망요	망건짜는소리	○
	탕건짜는소리, 양태짜는소리,		×	
	잡역요	방앗돌 굴리는 소리, 똑딱 불미노래	○	
		집줄놓는소리, 풀무질소리	×	
의식요	굿의식요	긴서우췌소리, 자진서우췌소리,	○	
	장례의식요	꽃염불소리, 행상소리, 달구질소리	○	
음악내적 기능요 (통속민요)			오돌또기,영주십경,이야흥타령,너영나영,봉지가,산천초목,용천검,동풍가,신목사타령	○

○ : 전승되는 경우 × :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음.

136) 북제주군, 『아름다운전통의 소리』, 예술기획, 2001, 6쪽, 표 재인용.

제주도 노동요는 기능과 사설 및 노동의 상황 가창자의 마음까지 담고 있는 가장 서민적인.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사라져가는 무형의 가치로 전통방식에 의해 전승이 되고 있으며 사설의 주는 내재적 가치는 제주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전승가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 강습 및 시연사례

근대이후 전통문화는 서구문물의 유입과 확산으로 심각한 퇴조와 소멸의 국면에 놓이게 됐으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는 현대 문명에 밀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타개할 목적에서 국가차원의 보존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었고 그 결과 상당수의 무형문화재를 전승 유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전승지원금으로 전승자들이 전승교육과 생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¹³⁷⁾ 비인기종목의 전승의 기능단절, 시설투자 빈약, 무형문화재 종목의 규모와 부대비용에 상관없는 획일화된 공개행사비로 전수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형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부재로 전승에 어려움이 있다.

무형문화재는 자연발생적 현상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유산으로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져오는 시대를 반증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지자체의 문화정책 및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무형문화재전승과 원형보존 등 정책적 방안으로 일반인들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승과 보존의 취지에 맞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체험강습 및 시연 등 프로그램 개설로 누구나 쉽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마련되었으며 노동환경의 변화로 유희 인력의 삶의 질에 따른 문화향유의 기회로 무형문화재 체험강습은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다.

137) 홍건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중요무형문화재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1~52쪽.

무형문화재 강습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가 더 이상 특권층의 문화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이해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보편화되었다.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 그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예술로서 민족의 정서와 삶의 고스란히 깃들여 있는 전승가치가 있는 소중한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는 제주농요보존회로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에서 제주시청 ‘제주시전통학교’ 강의로 매주 토요일마다 전승 강의를 하고 있다.

2006년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예능보유자이셨던 故이명숙 선생님의 강의개설로 전승강의를 시작했으며, 보유자 타계 후 전수조교인 김향옥 외 이수자가 전승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밭불리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말’에게 먹일 출(꼴)을 베는 출비는 소리 외 제주도 토속민요 중 농업 노동요인 방아짚는 소리, ㄴ래(맷돌)ㄴ는 소리, 어업 노동요인 멸치후리는 소리, 제주해녀들의 바다에 해산물을 채취 하기전 역동적으로 노를 저으며 불렀던 해녀노젓는 소리 등 제주 사람들의 실질적 생계와 관련되어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로, 노래에 맞는 소품을 구성하고 실질적 체험으로 전승하고 있다. 그 외 굿 의식요인 제주 사람들의 한을 풀어내는 서우젯 소리, 장례의 식요인 꽃염불 소리 등 시대적 변이로 사라져가는 제주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곡목 외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너영나영, 오돌또기, 영주십경이야흥, 용천검 등 제주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곡목들이 제주 창민요 를 배울 수 있다. 제주시전통학교 강의는 제주도민들에게 익숙한 강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전통학교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9>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 제주농요 강의138)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버스 이동길이가 30여분 정도의 사라봉공원의 근접 지역에 있어 관광객 및 일반 시민들의 산책길에 많이 들리는 곳이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주농요보존회(한라예술단)원으로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정기공연 외 전통공연무대에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전승강습 및 시연 등 연계학습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와 제주농요의 전승의 기대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2) 제주농요 전수교육관 학습자 제주농요 강습 및 시연사례

현대화와 기계화 등 자동화시스템에 따른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로 전통 방식의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일손의 필요 없는 생산구조로 바뀌었으며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밭농사 위주인 밭 매는 작업에서 수확한 곡식을 털어내기 위해 도리깨로 내리치면서 부르던 마당질 소리, 털어낸 곡식을 방아, 맷돌을 이용해 찧으면서 불렀던 방아찧는 소리 외 그레(맷돌)고는 소리는 선조들의 삶의 애환과 그 시대상을 반추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제주농요는 토질이 유다른 제주도 밭농사에서 일의 순서와 흥을 돋우어

138) 본인 소장 사진 자료.

효율적인 노동을 위해 서로를 독려하며 불렀던 토속민요이다.

시대적 변이로 노동현장이 아닌 제주농요전수교육관에서 학습자들에 의해 불리어지고 있으며 제주농요의 원형보존과 전승의 취지에 맞게 시대적 흐름에 변용되면서 선조들의 전통방식으로 재현되며 전승되고 있다.

제주농요전수교육관은 제주시 중앙로에서 동쪽으로 도보로 10분여 거리에 있으며 제주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이셨던 故이명숙선생님의 맥을 이어 제주농요 전수조교 외 이수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청 제주농요 전승 강의 외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으로 제주민요를 강의하고 있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보존회(한라예술단)는 제주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통공연과 故이명숙선생님의 추모공연으로 장례문화인 행상재현 꽃염불 소리, 해녀노젓는 소리, 멸치후리는 소리 등 실질적 체험강습으로 재현을 하는 등 원형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으로 전승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주농요체험학습장을 마련하여 전수생들이 실질적 농사를 짓고 김을 매고 수확을 하는 등 제주농요전승교육은 연계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연계학습이란 제주농요전수교육관에서 제주농요에 대한 사설 및 노랫말을 익히고 노동요를 배우며, 실질적인 체험강습인 노동의 장소(밭)인 체험학습장에서 학습자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수확을 하는 등 실질적 체험으로 노동요를 이해하고 제주농요보존회(한라예술단)로 관객을 위한 공연무대에서 재현하기까지 연계 학습이다.

일상의 노동의 연속인 제주사람들은 여가의 삶의 란 꿈도 꾸지 못했으며, 오죽했으면 죽어서야 해방이 되는 삶의 질곡으로 장례일 그날만은 망자를 위한 예를 다했다 한다. 또한 평소에 안하던 음주가무(歌舞)를 행함으로써¹³⁹⁾망자를 위한 슬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연면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총체적인 제주사람들의 삶의 일상이 민요의 소재가 되어 자연에 비유하는 문학성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자율적인 통제와 규율로 삼았으며, 노동량이 많은 제주 여성들은 수없이 많은 노래들의 각 편 들을 만들어냈다.

139)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6. 155쪽.

다음 <그림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전승체험 학습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제주농요 전승강의¹⁴⁰⁾



제주농요보존회원(한라예술단)



해녀노젓는 소리 강습



멸치후리는소리 (실질적 체험강습)



제주농요체험학습장 (농사체험)

척박한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제주사람들은 강인한 자강불패(自強不敗)의 정신이 필요했고 모든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급자족은 서로를 도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문화와 존양(절약)정신인 정체성으로 남아 있다.

3)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공연사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제주농요는 제주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노동이 현장이나 상황, 가창자의 심정이나 가치

140) 본인 소장 사진 자료.

관, 생활방식 등 진솔한 사람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인 제주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어 후손들에 의해 전승되며 가창되는 노동요를 말한다.

제주도는 지리적·자연·환경적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통속민요 보다 토속민요인 노동요가 많다.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하는 질곡의 삶은 독특한 문화와 관습으로 타인이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이라 생각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되는 이타심과 이웃 사촌간의 서로 돕는 켤당문화¹⁴¹⁾를 만들어 냈으며 삼강(三強)이라 하여 노인과 여성, 말(馬)이 강함¹⁴²⁾을 뜻하여 노동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원시적 노동요법으로 사람과 마소의 교감으로 밭을 일구어내는 전통방식의 노동요인 밭불리는 소리와 해너노젓는 소리 등 노동의 독려기능 외에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자존감과 자율적 규범 등 노동요속에 질서가 존재하였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제주농요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로 만들어낸 원시노동요법으로 밭불리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3곡이며 2002년 5월 8일故이명숙씨가 제주농요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故이명숙씨는 제주농요의 전승가치와 후계전승에 주력하다 2007년 타계 했으며, 전수조교인 김향옥 외 이수자가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전승강의와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제주농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농요의 사전적 의미는 제주도 노동요인 농업노동요 중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밭불리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를 말한다. 제주농요보존회는 전통방식의 재현을 통해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연으로 지역축제중 대표적 축제라 할 수 있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공연, 탐라대전,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공연, 대한민국국악제, WCC자연보전총회 한식문화 축제, 제주시청 자연유산등재 문화축제, 등 제주도 지자체의 굵직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 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타 예술단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주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제

141)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사촌 등 멀고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말이며, 제주 특유의 공동체문화로 이웃 사촌을 친척 대하듯,집안에 혼례나 장례 등 관심사가 있을 때 자기 일처럼 돕는 문화를 말한다.

142)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6, 239쪽.

주농요의 전승가치를 알리고 있다. 그 외 무형문화재 원형전승 및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인 대상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체험강습 및 시연,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시전통학교 강의,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제주농요전승강의외 제주문화재지킴이 지도교사직무 연수강의를 하고 있다.

제주농요전승을 위한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제주도 노동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통방식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어업노동요인 해녀복을 입고 테우, 배, 노를 저으며 해녀노젓는 소리 외 멸치후리는 소리, 물허벅을 지고 제주민요의 오돌또기 음악에 물허벅춤 과 해녀무용 등 원형에 가깝게 소품을 제작하여 제주도 전통을 알리는 정기공연인 전통문화향연으로 제주문화의 우수성과 제주농요의 전승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무대 공연 사례를 알 수 있다.

<그림 11> 테우(뗏목배)재현-이여도사나 세계자연유산등재 문화축제¹⁴³⁾



제주 민요에 노동요의 종류가 많고 기능에 따라 노래가 잘 분화되어 있는 것은 제주사람들이 생활이 노동과 밀착되어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노동기능과 함께 노래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전통방식의 노동요의 재현이 현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에 근거를 두는 공연물로 청소년과 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으로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143) 본인 소장 사진 자료.

4.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결과 및 분석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가치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20대 ~ 50대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했으며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가치 및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전승방안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제주시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토속민요의 전승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의 한계가 있으며, 통계자료의 분석을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평가 설문내용은 총 25문항으로 통계처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4문항, 제주도 공동체의식문화 및 가치관 관련내용 5문항, 제주도 토속민요의 노동요에 대한 일반적 현황 12문항,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관련 내용 4문항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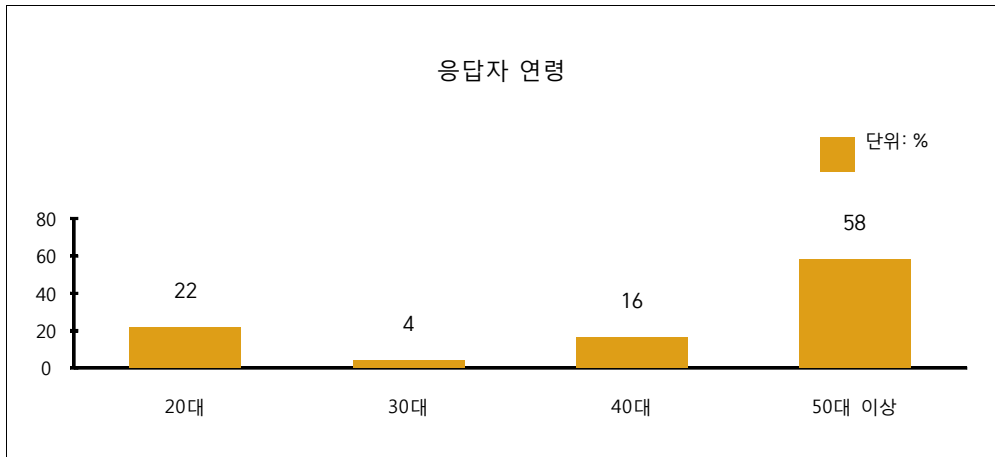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계처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다음 <표Ⅳ-1> 현재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연령대 별 응답자 수는 20대~50대 이상으로 20대가 11명(22%), 30대가 2명(4%), 40대가 8명(16%), 50대 이상 29명 (58%)이 설문에 응했다.

<표Ⅳ-1>

연령	응답자 수 (명)	백분율(%)
20대	11	22
30대	2	4
40대	8	16
50대 이상	29	58
합 계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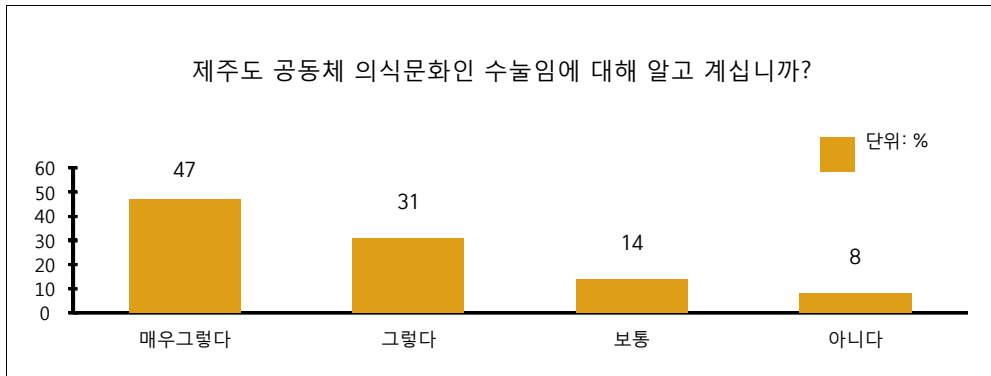
2) 제주도 공동체 의식문화 및 가치관 관련내용

다음 <표IV-2> 제주도 공동체 의식문화인 수눌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매우그렇다’ 응답자수가 23명(47%), ‘그렇다’ 16명(31%), ‘보통’ 7명(14%), ‘아니다’ 응답자수가 4명(8%)로 나왔으며 ‘매우그렇다’ 와 ‘그렇다’ 응답자수가 많아 제주도민들의 공동체문화 및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표I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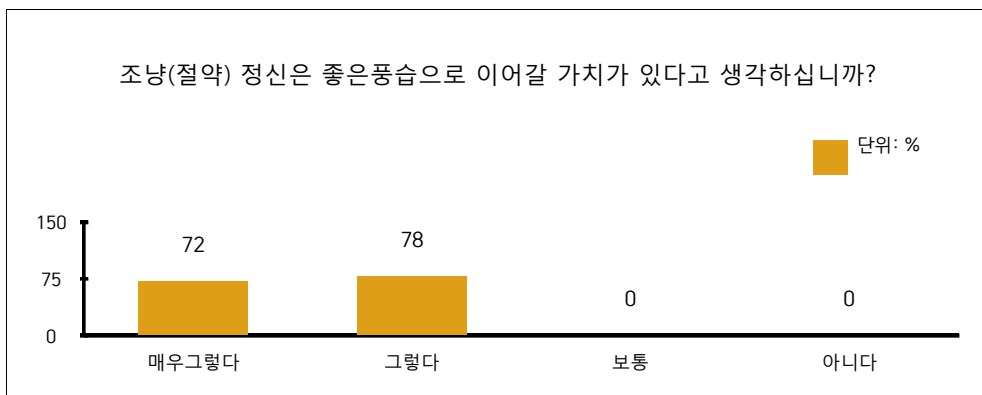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매우그렇다	23	47
그렇다	16	31
보통	7	14
아니다	4	8
합 계	50	100



다음 <표 IV-3> 조낭(절약)정신은 좋은 풍습으로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주도 특유의 조낭(절약)정신의 계승을 묻는 응답자는 ‘매우그렇다’ 36명(72%)와 ‘그렇다’ 14명(28%)로 나와 제주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표 I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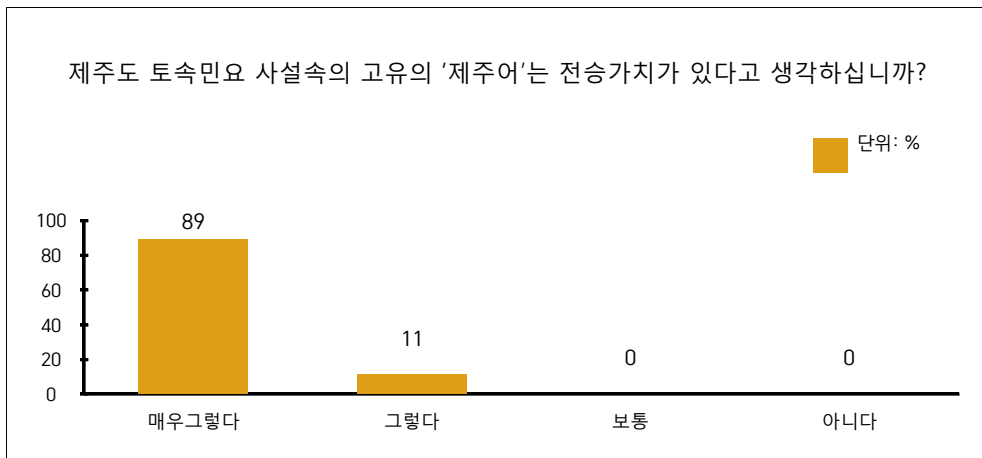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매우그렇다	36	72
그렇다	14	28
보통	0	0
아니다	0	0
합 계	50	100



다음 <표Ⅳ-4> 제주도 토속민요 사설속의 고유의 ‘제주어’는 전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특유의 ‘제주어’의 전승가치를 묻는 응답자는 ‘매우그렇다’ 44명(89%) ‘그렇다’ 6명(11%)로 전체응답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제주방언인 ‘제주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표Ⅳ-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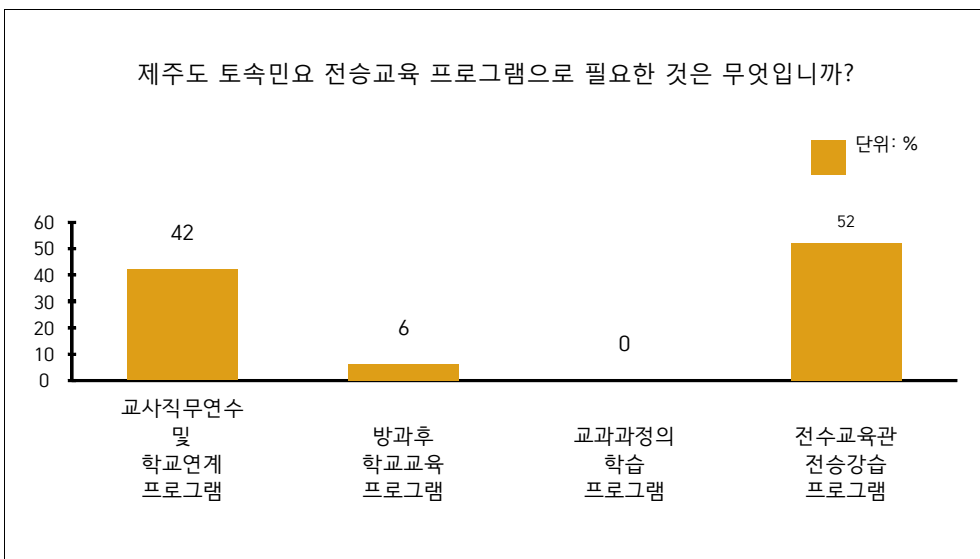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매우그렇다	44	89
그렇다	6	11
보통	0	0
아니다	0	0
합 계	50	100



다음 <표Ⅳ-5> 제주도 토속민요 전승교육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승교육프로그램을 묻는 응답자중 교사직무연수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21명(4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9명(6%),전수교육관 강습프로그램26명(52%)나타나 지역기반시설에 연계한 체험강습 프로그램이 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표 I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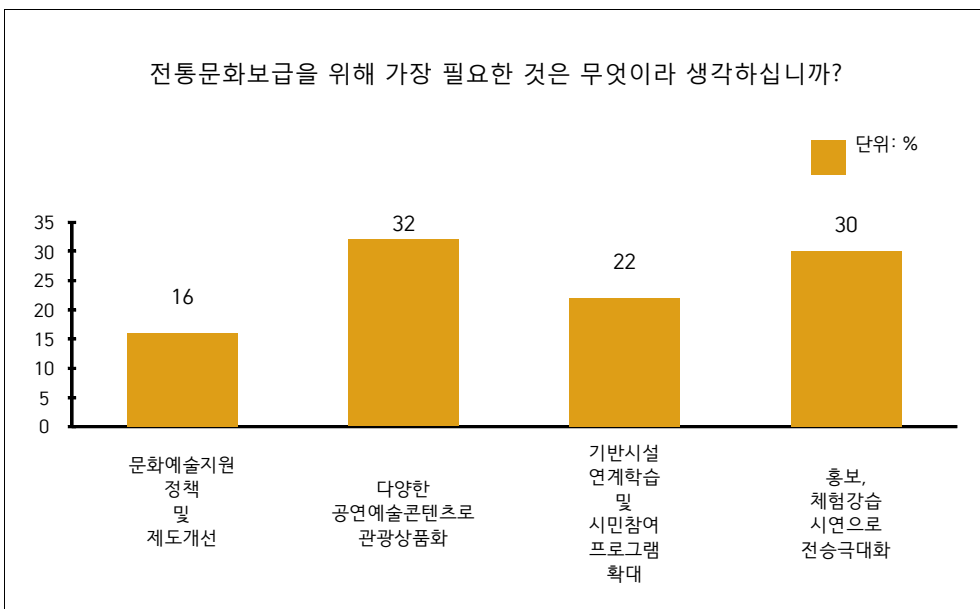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교사직무 연수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21	42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	3	6
교과과정의 학습프로그램	0	0
전수교육관 전승강습 프로그램	26	52
합 계	50	100



다음 <표IV-6> 전통문화보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질문의 응답자 중 ‘문화예술지원제도’ 8명(6%), ‘다양한 공연예술콘텐츠로 관광상품화’ 16명(32%), ‘지역기반시설연계 학습프로그램’ 11명(22%), ‘홍보 및 체험강습 프로그램으로 전승극대화’ 15명(30%)로 나타나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Ⅳ-6>

유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문화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개선	8	16
다양한 공연예술콘텐츠로 관광상품화	16	32
기반시설 연계학습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11	22
홍보, 체험강습 시연으로 전승극대화	15	30
합 계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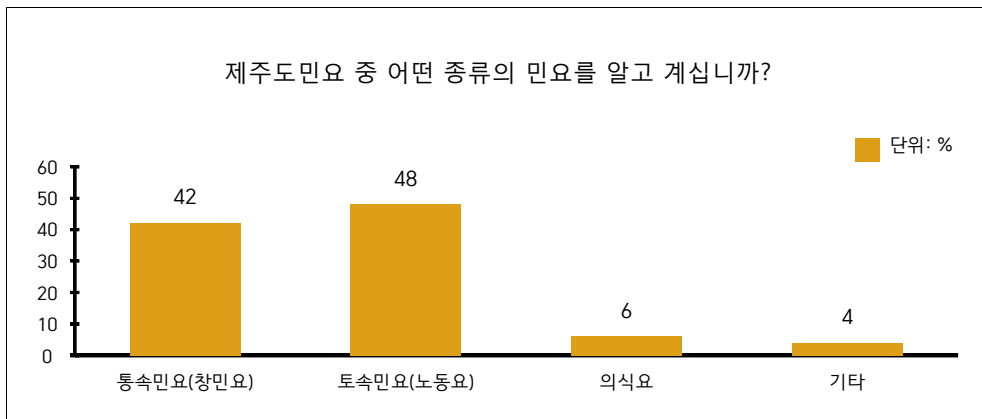


3) 제주도 토속민요(노동요)에 관한 일반적 현황

다음 <표Ⅳ-7> 제주도민요 중 어떤 종류의 민요를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민요의 선호도 응답자 중 ‘통속민요’ 21명(42%), ‘토속민요’ 24명(48%), ‘의식요’ 3명(6%), ‘기타’ 2명(4%) 로 나타나 통속민요 와 토속민요의 비중이 비슷함을 나타냈다.

<표Ⅳ-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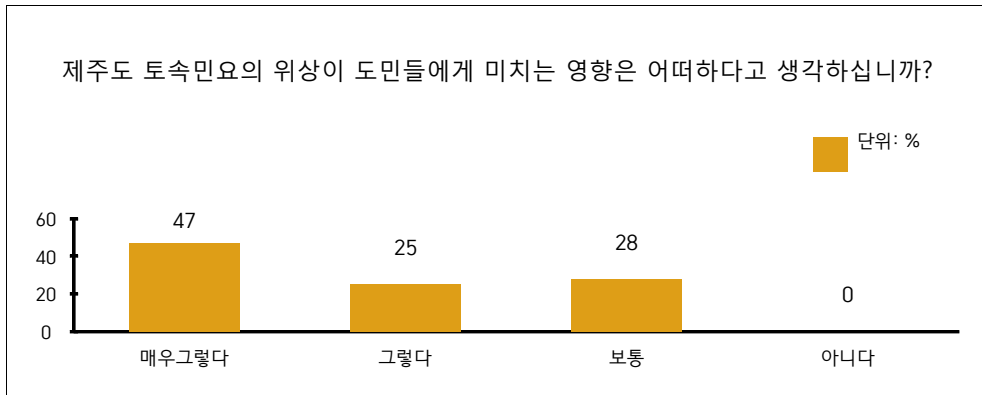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통속민요(창민요)	21	42
토속민요(노동요)	24	48
의식요	3	6
기 타	2	4
합 계	50	100



다음 <표Ⅳ-8> 제주도 토속민요의 위상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속민요 위상을 묻는 응답자수는 ‘매우그렇다’ 23명(47%) ‘그렇다’ 13명(25%), ‘보통’ 14명(28%)로 나타나 토속 민요의 사설의 내재적 가치가 제주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이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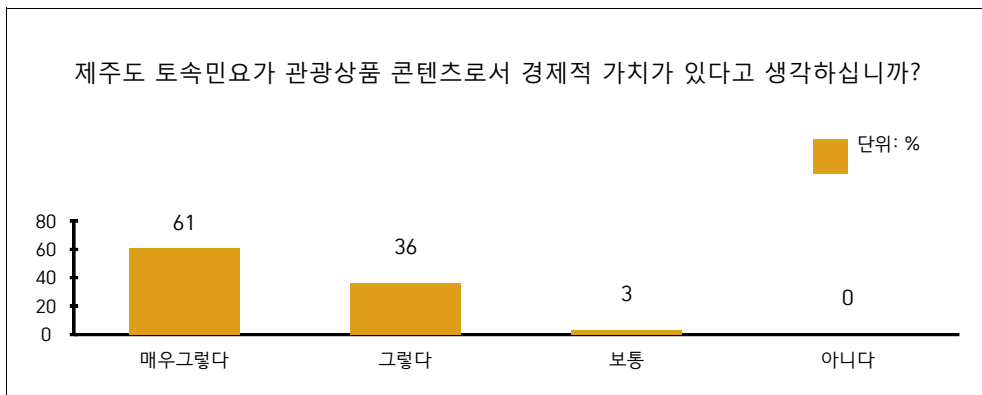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23	47
그렇다	13	25
보통	14	28
아니다	0	0
합 계	50	100



다음 <표Ⅳ-9> 제주도 토속민요가 관광상품 콘텐츠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상품 콘텐츠로서의 토속민요의 경제적 가치를 묻는 응답자 중 ‘매우그렇다’ 30명(61%), ‘그렇다’18명(36%), 보통2명(3%)로 나타났다.

<표Ⅳ-9>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30	61
그렇다	18	36
보통	2	3
아니다	0	0
합 계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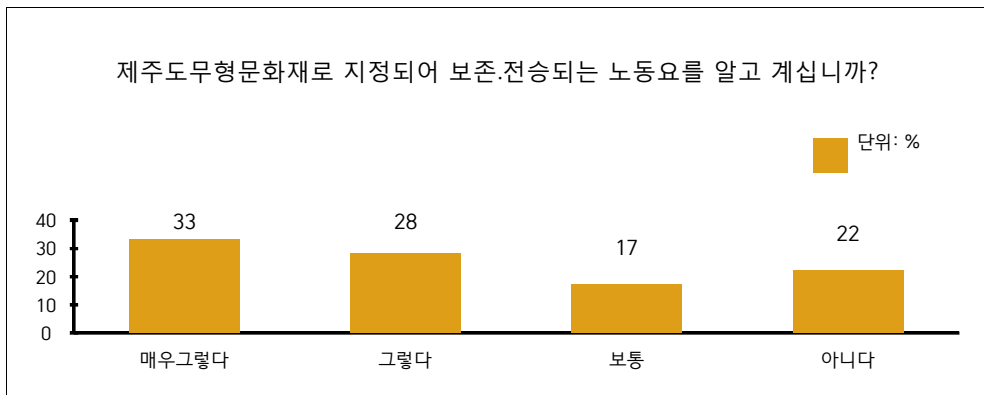


4)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 관련 내용

다음 <표IV-10>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는 노동요를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노동요의 인지도를 묻는 응답자 중 ‘매우그렇다’ 17명(33%) ‘그렇다’ 14명(28%), ‘보통’ 8명(17%), ‘아니다’ 11명(22%)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IV-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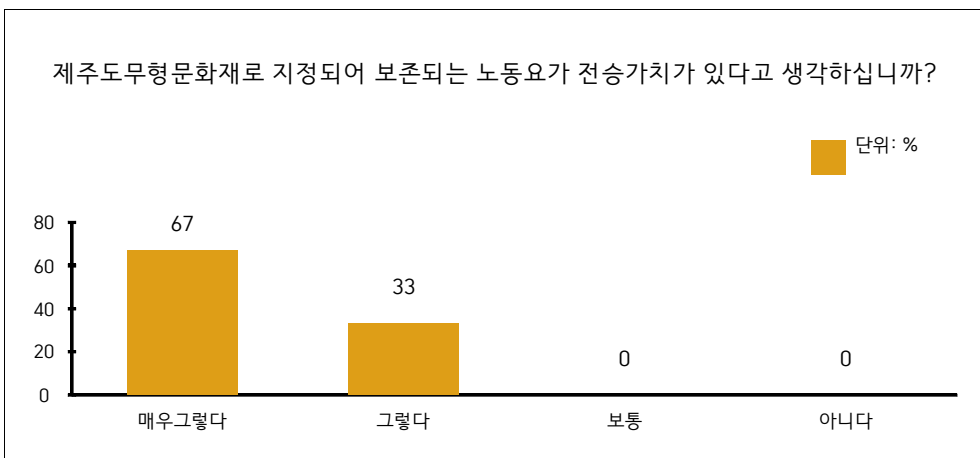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17	33
그렇다	14	28
보통	8	17
아니다	11	22
합 계	50	100



다음 <표IV-11>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노동요가 전승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노동요의 전승가치를 묻는 응답자중 ‘매우그렇다’ 34명(67%), ‘그렇다’ 16명(33%)로 나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의 가치인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11>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매우그렇다	34	67
그렇다	16	33
보통	0	0
아니다	0	0
합 계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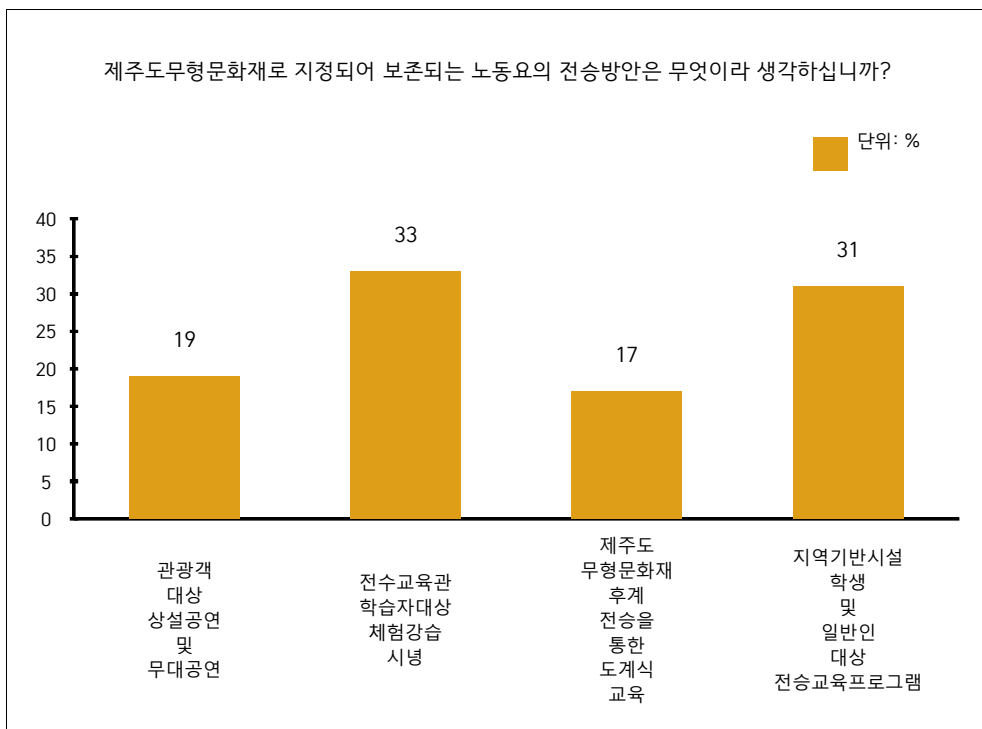


다음 <표Ⅳ-12>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노동요의 전승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무형문화재 노동요의 전승방안을 묻는 응답자중 ‘관광객대상 상설공연 및 무대공연’ 10명(19%), ‘전수교육관학습자대상 실질적 체험강습’ 17명(33%) ‘제주도무형문화재 후계전승을 통한 도제식교육’ 8명(17%) ‘지역기반시설 학생 및 일반인대상 전승교육프로그램’ 15명(31%)로 나타났다.

<표Ⅳ-12>

유 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관광객 대상 상설공연 및 무대공연	10	19
전수교육관 학습자대상 체험강습.시연	17	33
제주도무형문화재 후계 전승을 통한 도계식 교육	8	17
지역기반시설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전승교육프로그램	15	31
합 계	50	100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토속민요 중 노동요를 중심으로 전승현황 및 전승구도 전승실태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방안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주도에 거주하는 20 ~ 50대 이상이 지역 기반시설에 연계한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계처리 기초자료 4문항 제주도 공동체 의식문화 4문항 노동요의 일반적 현황 12문항 노동요의 전승가치 4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제주도 특성인 三無정신과, 즈낭정신, 공동체문화 등 노동요의 사실 분석으로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이어져 오는 노동요의 전승가치를 고찰하였으며 시대적 변이로 사라져가는 무형의 가치인 제주전통 문화유산으로서의 경쟁력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수교육관 연계학습인 체험학습장을 마련하여 실질적 체험강습으로 전승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에는 지리적 자연·환경적 특성상 통속 민요보다 토속민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삶으로 제주도 특성에 맞는 원시적 노동요법이 발달하였다. 또한 노동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문화인 수놓음과 즈낭 정신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느니 제주를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승 현황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소리인 농업노동요인 김매는 소리, 밭 밟는 소리, 타작소리, 제분요인 ㄱ래고는 소리, 방아짚는 소리 등 노동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업요에서 해녀노젓는 소리, 멸치후리는 소리 외 관망요인 망건짜는소리 등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과 직결된 가사로

노동의 독려수단으로 불려지는 토속민요가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동요의 전승구도는 근대화와 노동환경의 변화로 노동요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는 일은 거의 없으며 노동현장에서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전승되고 있으며 무형의 가치로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공개공연과 지역기반시설에 연계한 체험강습프로그램인 시연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이 배어 있는 ‘조남(절약)정신’이 좋은 풍습으로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여 ‘매우그렇다’ 36명(72%)와 ‘그렇다’ (28%)로 검증이 되어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절약정신이 이미 삶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노동요 사설이 제주고유의 방언인 ‘제주어’로 전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4명(89%) ‘그렇다’ 6명(11%)로 전체응답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제주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후대에 계승해야할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이 검증되었다.

여섯째,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노동요의 전승가치를 묻는 응답자중 ‘매우그렇다’ 34명(67%), ‘그렇다’ 16명(33%)로 나와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들이 제도화되어 체계적 전승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노동요의 전승방안을 묻는 질문에 ‘관광객대상 상설공연 및 무대공연’ 10명(19%), ‘전수교육관 학습자대상 실질적 체험강습’ 17명(33%) ‘후계전승을 통한 도제식교육’ 8명(17%) ‘지역기반시설 연계 전승교육프로그램’ 15명(31%)등 고르게 나와 무형문화재가 무형의 가치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문화로 생활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승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로서의 관광 상품화로 경제적 가치 및 전승의 기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기반 조성이 제도화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제언

제주도 노동요는 제주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는 전승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유산으로 후대에 계승해야할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시대적 변이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그 지역민의 정체성이 계승됨을 의미한다.

제주사람들이 정신이 담긴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문화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문화로 정착될 때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대에 이어갈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전승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민요시설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청소년과 학생들의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학습장을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무형의 가치로 전승과 보존으로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 중, 고 교과 과정에 지역적 특성이 담긴 민요의 연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창석 외 28명 공저,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 광문당, 2009.
-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0.
-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 북제주군,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예술기획, 2001.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7.
- 신동일,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소득 증대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1.
- 이유범 외 9명 공저, 『느루, 제주문화재지킴이 지도교사 직무연수』, 제주: 제주문화재 지킴이, 2011.
- 이성용, 『제주올레(jeu olle)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9.
-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 대영인쇄사, 1996.
- 제주도, 『2012, 탐라대전』, 51회 탐라문화재, 제주: 제주도, 2012.
- 정승훈 외 1명 공저,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1.
- 정홍익 외 2명 공저,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예총』, 제주: 제주사람들, 2009.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예총』, 제주: 제주사람들, 2012.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51회 탐라문화재』,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2012.

<논문>

- 고희송,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강문봉, 「제주해녀노랫는 소리의 지역별 비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미경, 「무형문화재 정책 및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시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수정,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돈, 「濟州道 女性勞動謠에 드러난 島民意識」, 『國語國文學論文集』, 第12輯, 1983.
-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民謠論輯』, 제4호, 1995.
-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변성구, 외 4명 공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의 가치와 전승 보전방안」, 『민요학회』, 제10회 학술세미나, 2009.
- 이창식, 「노동요의 기능 인식과 무형문화재 지정검토」, 『韓國民謠學』, 第23輯, 2008.
- , 「김영돈의 민요학 연구」, 『韓國民謠學』, 第13輯, 2003.
- 이지선, 「중요무형문화재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화 전략-중요무형문화재촌 테 마파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성훈, 「해녀노랫는 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제 6집, 2009.
- , 「민요의 전승과 교육을 위한 사설 표준화 방안」, 『韓國民謠學』, 第32輯, 2011.
- 임재해,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韓國民俗學』, 제45권, 2007.
- 윤치부, 「제주민요의 기능적 분류」, 『濟州教育大學教 論文集』, 第25輯, 1996.
- 오남훈, 「제주도 토속민요의 선율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안선국, 「한국의 전통공연예술정책에 관한연구-중요무형문화재예능종목 보급 및 선양과 관련된 정책중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양진환,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양창선, 「제주전통문화의 전승교육 실태와 지도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영배, 「濟州道 勞動謠의 리듬적 特性과 勞動行爲와의 關係」, 『濟州教育大學教論文集』, 第16輯, 1986.
- _____, 「濟州道 勞動謠의 音調織과 旋律構造에 관한研究 C.sachs와 R. Lachmann 의 이론을 중심으로」, 『趙泳培 民謠論輯』, 第1輯, 1988.
- 좌혜경,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白鹿語文』, 第13輯, 1997.
- 진혜영, 「경제적 인센티브로서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홍건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정기간행물 및 보고서>

- 고제량, 「가을의 제주, 오름 사잇길의 다섯풍경」, 여성주의저널 일다 http://ildaro.com/sub_read.html?uid=5631§ion=sc7 2011.
- 김봉현, 「탐라문화재 어제 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삶과문화』, 2011겨울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 제주도청 홈페이지 「열린행정 통계정보 문화관광스포츠분야」, 2012년 주요 행정총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정책과, 2007년 제정, 2012일부 개정.

<부록>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방안 연구

-노동요를 중심으로-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석사학위 논문(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방안 연구-노동요를 중심으로)을 쓰게 되어 논문에 참조할 기초자료의 통계 자료로 설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옛 선조들의 그 시대상을 총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 전승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본 자료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현대화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토속민요의 현황과 전승구도를 분석하여 전승가치에 대한 논의 및 방안들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지로 논문 제출용인 통계처리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정보역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중등교육 전공 김향희

통계 처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

<보기>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① 매우그렇다(매우많음) ② 그렇다(많음) ③ 보통(보통) ④ 아니다(없음)

※ 보기와 같이 해당된 숫자에 ○ 표 해주십시오.

1. 현재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 귀하나 귀하 가족께서 제주도에서 농사와 관련되어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3. 농사 관련업에 종사했다면 어떤 직종에 했습니까?
① 농업 ② 어업(해녀) ③ 목축업 ④ 기타()
4. 농사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농사(어업, 해녀)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제주도 공동체 의식문화 및 가치관 관련 내용

1. 제주도 공동체 의식문화인 수놓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2. 즈낭(절약)정신은 제주도 특유의 생활양식으로 근면과 자립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 하려는 정체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좋은 풍습으로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3. 제주도 토속민요의 사설속에 고유의‘제주어’는 전승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4. 제주도 토속민요 전승교육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 직무연수 및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 ②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 ③ 교과과정의 학습프로그램
 - ④ 전수교육관 활용 전승강습 프로그램
5.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개선
 - ② 다양한 공연예술콘텐츠로 관광상품화
 - ③ 기반시설 연계학습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④홍보 및 체험강습 및 시연프로그램으로 전승의 극대화

제주도 토속민요(노동요)에 관한 일반적 현황

1. 귀하께서는 제주도민요 중 어떤 종류의 민요를 알고 있습니까?(중복선택가능)
- ① 통속민요(창민요)
 - ② 토속민요(노동요)
 - ③ 의식요
 - ④ 기타
2. 제주도 토속민요 중 가창(歌唱)할 수 있는 민요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3. 제주도 토속민요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4번 응답자만 3-1로 이동>

3-1. 만약 관심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②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여유가 없어서

③ 교육장소 및 교육여건 등 정보부족으로

④ 기타()

4. 제주도 토속민요의 사설이 제주도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5. 제주도 토속민요의 위상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6. 제주도 토속민요의 관광상품 콘텐츠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7.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전승되는 노동요를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8. 공연관람이나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승 강습 및 시연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9. 강습에 참여함으로써 토속민요(노동요)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10. 제주도 노동요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사설로 자연에 비유해 자신들의 삶을 승화 시키는 문학성으로 삶의 애환과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정신적 귀감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오름(봉우리)에 돌광 지세어멍(본처)은/ 둥글어 땡기당도(굴러다니다가도) 살을매(살아갈방도) 난다” <뜻>우직한 돌에 끈은 정절을 지키는 당찬 제주 의 여인을 비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방도가 생긴다는 뜻> ‘지세어멍’ 끈 정절이 끈고 집안일을 착실히 하는 어머니/ ‘오름’ 곧 한라산의 기생화산 에 놓여진 돌을 적절히 비유하여 나타냄. (제주도 토속민요중 “방아짙는소리”의 사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11.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물질만능과 인간경시풍조 등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에게 선조들의 정체성이 배어있는 토속민요의 사설이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12.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전승가치에 대해 서술해주시요.

()

제주도 노동요 의 전승가치 관련 내용

1. 제주도 토속민요인 노동요는 옛 선조들의 그 시대상을 총체적으로 엿 볼수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자원입니다.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전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2.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노동요, 전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2-1. 제주도무형문화재 노동요의 전승가치가 있다면 전승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비중이 높은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관광객 대상 상설공연 및 무대공연을 통한 전승의 기대효과
 - ② 전수교육관 학습자 대상 실질적 체험강습을 통한 전승의 기대효과
 - ③ 제주도 무형문화재 후계전승을 통한 도제식 교육으로 전승구도 확립
 - ④ 지역기반시설 학생 및 일반인대상 전승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승의 기대효과
3. 제주도 노동요 중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한라산에 방목한 마소떼를 타 이르며 불렀던 원시노동요법인 밧벌리는 소리와 방아.맷돌노래, 해녀노래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 제주지역 에서만 구전되는 토속민요입니다. 전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4. 제주도 노동요는 근대화와 산업화로 노동과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구전되고 있으며 관객을 위한 무대공연으로 구연되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의 생활양식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전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방안 연구 -노동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중등교육 전공
김향희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이 있고 세계최대 기생화산 군락인 360여개의 오름이 능선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는 독특한 섬에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입지적 요인이 되었으며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올레길’은 제주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 내고 있다.

제주도의 지형은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흐르면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토지는 대체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내리는 빗물은 흔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바닷가에 이르러 솟아나며 혈관처럼 뻗어 내린 많은 내들은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야 갑자기 흘러넘치는 건천으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바람은 세차서 농작물에 큰 타격을 주고 여기저기 돌맹이가 지천으로 깔리어 사람 살기에 제주의 환경은 썩 알긋고 척박했으며 본토와의 떨어진 環海孤島의 척박한 섬으로 土客의 횡포와 몽골이 침입, 왜구의 침탈 등 숱한 역경에 시달려야 했다.

제주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自強不敗의 정신으로 살아남기 위해 제주도 특유의 삼무(三無)정신¹⁴⁴⁾과 즈냥¹⁴⁵⁾정신, 수눌음을 통한

144)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제주사람들 특유의 정신.

145) 검소한 생활로 절약 하는 정신.

공동체문화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냈으며 힘든 노동의 상황과 희망 등을 토속민요인 노동요의 사설에 담아 표출해냈다.

제주도 특유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은 선조들의 삶의 지혜로 원시노동요법인 ‘밧불리는 소리’를 만들어내어 화산회토의 메마르고 푸석한 뜰¹⁴⁶⁾에 ‘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라산에 방목한 ‘마소’들을 몰아다 밭을 밟으면서 농사를 지었고, 경제적 수단으로 생계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캐면서 삶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해녀노래’를 불렀다. 노동과 분리될 수 없었던 제주사람들은 노동의 연속으로 삶의 터전에서 밭을 일구고 방아를 찧고 바다에 나가 무자맥질로 해녀 일을 해야 하는 등 잠시도 쉴 틈이 없었으며, 노동요는 일상이 되어 同一한 曲調에 가창자의 심정을 담아 수많은 사설들을 쏟아내며 각 편을 만들어 냈다. 제주도 토속민요에는 원초성과 고유성이 짙은 독특한 생활양식인 風土, 歷史, 民俗, 生産, 經濟, 社會, 宗教, 文化 등 모든 것과 도민의 生産方法, 및 思考方法 등이 뭉뚱그려져 나타나 제주도민의 전부가 담겨져 있다. 제주사람들은 노동요의 사설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소리에 대한 인식과, 인생관, 운명관, 가난과 재물 등 개별적인 삶으로 형상화했으며 때로는 자신과의 독백으로 삶의 정서를 사설에 담아 표출했다. 자연과 일상의 민요의 소재가 되었으며 노동요의 사설을 통해 자율적 정화기능으로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자존감등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정신적 주체로 자신들이 삶의 모습을 자연에 투영시켜 비유함으로써 문학적으로 그려내는 삶의 철학이 담긴 구전문학이라 할 수 있다.

노동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 상이한 공동체문화인 수눌음을 통한 공동작업, 공동분배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성이 할 일을 여성이 하거나 젊은 사람이 할 일은 노인이 하기도 하는 勞働人力의 구분이 없었으며 가족관계 구성까지도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한국 본토의 전통과 달리, 제주의 노부모들은 부자간에도 권위(權威)와 종속(從屬) 없이 노인들도 거동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

146) 화산토로 토질에 찰기가 없는 ‘푸석 푸석’한 땅.

계를 책임지려¹⁴⁷⁾는 정체성으로 나타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오달진 의지와 자존감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 제주도 노동요의 전승가치에 대한 방안 연구를 하였다.

제주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정신·문화적 가치, 제주자연유산과 연계한 무형유산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가치, 희소성 등 사라져가는 무형의 가치로 시공간을 초월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방식의 재현에 의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외형적 가치 등 제주인들의 삶의 생활방식과 고유의 ‘제주어’로 이루어진 노동요의 사설이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내재적 가치 등을 제도화 하여 전통을 소재로 한 전통문화콘텐츠로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전수교육관강습프로그램, 제주농요전수교육관 전승교육프로그램, 제주농요 체험학습장에서의 실질적 농사체험 등 단계별 연계학습을 통해 인위적 전승에 앞서 자연스런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주 섬 특유의 지형적 조건에서 제주문화의 한 축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제주도 노동요는 독특한 고유의 제주어로 이루어진 선인들의 삶의 지혜로 구전되는 전승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유산이다. 오늘날 세계는 소통이 네트워크로 전통을 소재로 한 공연물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 섬 특유의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한라산, 제주의 정신인 제주어, 해녀와 돌 문화, 제주 굿, 제주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제주초가 등 문화적 요소와 옛 선조들이 삶을 조명해볼 수 있는 노동요를 제주 자연유산과 연계한 전통문화콘텐츠로 재창출하여 상품화한다면, 관광을 경유한 기대 전승과 경제적 가치를 이룰 수 있으며 고유한 제주 전통문화가 후세대에 까지 인위적 전승에 앞서 자연적 전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147)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7, 382쪽.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mission Strategy of Folk Songs in Jeju Island -Focusing on Work Songs-

Kim Hyang-he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f Seconda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Music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Located in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Jeju Island is famous for its Hallasan,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 Korea, and its 360 Oreums, the world greatest colonies of parasitic volcanos spreading along the ridge, together with its superb natural scenery that is composed of beautiful mountains and seas.

In recent times Jeju Island has been recognized by its unique island values of natural landscapes and therefore designated by UNESCO as a biosphere reserve, as a global geographic park, an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thus becoming a world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n addition, connected with its world natural heritage, Olle Roads have formed islanders' consensus and realized economic values.

From the aspect of geographical features, Jeju Island is a volcanic island formed through volcanic eruption and lava extrusion. Its land mainly consists of basalt and trachyte, and the rainwater coming down on it permeates through the ground and then gushes out on the seashore. And many blood vessel-like brooks are dry streams only

flooding with a torrential downpour and have caused a lot of troubles for farmers.

The wind blows violently and takes a heavy toll on crops. Stones are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thus resulting in a barren and ironic environment for human beings. Located far away from the main land, this isolated island that is encircled by seas cannot but undergo many ups and downs by the high-handedness of settlers and foreigners, Mongol's invasion and Japanese raiders' pillage.

Jeju islanders have survived these harsh circumstances via their invincible spirits, built their lives on the basis of their unique three nothing principles¹⁴⁸⁾, *janang*¹⁴⁹⁾ spirit and labor exchange-based community culture, and expressed their elbow grease and hopes via the lyrics of work songs—a kind of folk songs.

Jeju's unique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lements have created '*bat ballineun sori*'—a technique of primitive work songs—via its forefathers' wisdom of life, thus making farming on the land possible by means of tramping its *ddeun ddang*¹⁵⁰⁾ of volcano ash soil down hard by driving a herd of grazing horses and cattle to the field, in order for the seed sowed in the field not to be blown about. As a means of living, islanders have dived into the cold sea at the risk of their life and collected sea food, while singing '*haenyeo* (female diver) songs' with which they could overcome the toughness of life.

Jeju islanders, who could not escape from ever-continuing work, have been very busy in cultivating a field, milling and diving into the sea as a female diver. In this course of life, they made work songs a part of their everyday routine and expressed their feelings via a same

148) Such Jeju islanders' unique spirits as no thieves, no beggars and no gates.

149) Thrifty living-oriented frugality.

150) Crispy volcanic ground with no soil consistency.

tune of diverse lyrics, thus creating many unique work songs.

In Jeju folk songs, there are all the things and aspects of Jeju islanders' life on the whole, including such their primitive and unique modalities of living as natural characteristics, history, folklore, production, economy, society, religions and culture, together with their method of production and way of thinking.

Via making the lyrics of work songs an occasion of communication, Jeju islanders have given shapes to their individual life, such as their perception of songs, view of life, view of fate, poverty and property. At times, they have expressed their emotional aspects of life via monologue narrations.

Nature and daily routines have become the subject material of folk songs. Via the lyrics of work songs as a self-regulating function of purification and as a main body of spirits on which they could establish themselves firmly by making it a sense of moral norm-oriented self-esteem, they have comparatively projected their appearance of life into nature and then described it in a literary manner. In this vein, work songs seem to be orally transmitted literature which containing the literarily describing philosophy of life.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Jeju islanders have carried out group work and fair distribution, based on labor exchange-based community culture, and there has been no division of work between man and woman and young and old. So women did what men had to do at times, and old persons did what young people had to do at other times.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where such a customary family structure as the oldest son lives with and supports his parents exists, there was no prestige and subordination eve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Jeju Island. In this vein, even until today, old persons in

Jeju Island do not depend upon their children and play the role of bread winner for themselves,¹⁵¹⁾ as far as they can.

This study examined the transmission strategy of work songs in Jeju Island, which contained Jeju islanders' identity and value, who rebuilt their lives via solid will and self-esteem under barren natural circumstances.

In this vein, this study suggests the consistency of policies and the necessity of systems, in order for the lyrics of work songs in Jeju Island, which composed of Jeju islanders' way of living and unique language, to systematize its internal values that presenting Jeju islanders' identity, and then create economic values as tradition-based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based on a spiritual/cultural value as a traditional cultural asset in Jeju Island, on a socioeconomic value as a natural asset-connected intangible cultural asset, on a intangible value of which scarcity disappearing, and on an external value as traditional method reproduction-oriented cultural contents that comprising tradition and modern in a manner of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presents a strategy of not artificial but natural transmission through stepwise learning by linking it to regional infrastructure-based teaching hall lecture programs, Jeju Work Song Transmission Education Hall's transmission education programs, and practical farming experience in Jeju Work Song Study Facility, in order for it to be firmly established as a universal culture everybody can enjoy.

Work songs in Jeju Island, which keep up a hub of culture in Jeju Island under its unique geographic conditions and then present Jeju islanders' way of living on the whole, are traditional cultural assets

151) Song Seong-dae, 『The Origin of Culture and Understanding of it』, *Papyrus*, 1997, p. 382.

consist of unique language of Jeju Island, have been orally transmitted via foregoer's wisdom of life, and have the value of transmission. In today's world, strategies of making the most of traditional subject material-based performing contents have been worked out via the network of communication.

If work songs in Jeju Island, which reflect Hallasan, a unique ecologic repository of Jeju Island, and such cultural elements as Jeju language—a spirit of Jeju Island, female divers and stony culture, Jeju *gut* and thatched houses in Jeju Island, and highlight forefathers' life, are recreated as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in connection to its natural heritages, it seems to be possible to transmit its original cultural values, realize tourism-oriented economic values, and materialize not artificial but natural transmission of unique traditional culture in Jeju Island, to future generations.